



[산업] 삼성전자 '갤S9' 완전자급제 신호탄 되나 05



Economy

코스피	2459.45 (0.00)	코스닥	865.80 (0.00)
금리 (미국 3년)	2.29 (+0.01)	환율 (원/달러)	1069.80 (-0.40) (9일)

공장 80% 노는데 연봉은 1억... 노조에 진 GM

강성노조의 그늘

한국GM의 현실

가동률·생산성 감소에도 노조는 임금 인상위해 파업 등 강경입장 고집 단순 생산기지로 전략

회사 경영환경은 아랑곳 않은 채 도를 넘어선 주장을 되풀이하는 강성노조의 폐해는 한국GM 사태에서 가장 극명하게 볼 수 있다. 지난달 13일 한국지엠(GM)은 군산공장 폐쇄를 결정했다. 한국GM의 본사인 미국 제너럴모터스(GM) 측이 내세운 군산공장 폐쇄의 표면적 이유는 군산공장의 '고비용 저효율' 구조였다. 실제로 최근 군산공장 가동률은 20%를 밑돌았다. 군산공장의 직간접 고용 인력

은 약 1만3000명이다. 노조의 무리한 자기 주장으로 결국 모두가 피해를 입게 된 것이라 분석이다. ◆전형적 '고비용 저효율' 구조 한국GM은 미국 GM의 쉐보레 브랜드가 유럽·러시아 시장에서 철수하면서 수출물량이 급감해 공장 가동률은 떨어지고 생산성은 감소하는 상황에 처했다. 하지만 노조의 강경한 입장으로 인건비는 계속 오르는 고임금 구조가 맞물렸다. 한국GM의 1인당 급여는 2016년 기준 연간 평균 8700만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퇴직급여까지 더하면 평균 9700만원이 넘어 현대자동차보다도 많다. 군산공장 가동률이 20%대 머물면서 공장을 늘리는데도 임금은 계속 올랐다는 얘기다. 메리베라 GM 회장이 "한국GM 비용 구조는 매우 힘든 환경"이라고 언급한 배경도 이와 무

관치 않다. 생산성이 떨어지는데도 노조는 임금 인상을 위해 연례행사처럼 파업을 벌이면서 경쟁력은 갈수록 떨어졌다. 올해도 비슷했다. 한국GM 사측은 지난달 28일 3100억원 절감을 목표로 한 교섭안을 마련해 노조에 전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매년 1인당 1000만원씩 지급된 성과급을 줄여 연간 1600억원을 절감하고, 복직비용을 줄여 이를 맞춘다는 계산이지만 노조의 반대에 부딪혔다. 반면 미국의 GM 노조는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했다. 2009년 GM 노조는 북미 47개 공장 가운데 17개를 폐쇄하고 생산직 6만 1000명 중 2만 1000명을 감원하는 구조조정을 받아들였다. GM 노조가 속한 전미자동차노조(UAW)도 2년간 임금 동결 및 파업 유예, 상여금 포기 등을 수용했다.



환호하는 대한민국

11일 오후 강릉하키센터에서 열린 2018 평창동계패럴림픽 아이스하키, 체코에 승리한 한국 팀 선수들이 환호하며 관중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말뉴스

◆고비용·저효율 구조, 제조업 분야의 공통현상 한국GM의 사업 형태도 주목받고 있다. 한국GM은 연구개발에 집중하기보다 단순 생산기지로 전략했다.

GM이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결정한 것은 한국에 대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보다 단순히 차량을 생산하는 생산기지 전략이었기 때문이란 지적이다. 신차 개발을 등한시한 데다

품질까지 떨어졌다는 분석이다. 한국지엠은 과거 군산공장에서 생산된 라세티(크루즈 이전 모델)와 크루즈를 유럽지역에 20만대 가량 수출해 왔다. (2면에 계속)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평창서 운전대 잡은 文, 한반도의 봄 이끄나

4월 말 남북정상회담 이어 5월 북미정상회담 개최키로



북한 방문 결과를 미국에 공유하고자 출국했던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오른쪽)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11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연말뉴스

공공 얼어붙었던 한반도에 봄이 빠르게 찾아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4월 말께 판문점에서 만나 남북정상회담을 열기로 했고, 김정은 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5월에 북미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했다. 봄이 한창 무르익는 4~5월에 한반도 비핵화를 향한 큰 발걸음을 남한과 북한, 그리고 미국이 내딛는 것이다. 우리측이 곧 촉각을 세울 중국, 일본, 러시아도 여

에 힘을 보탬 전망이다. 취임 이후 줄곧 '한반도 비핵화'를 강조해 온 문 대통령은 집권 2년째에 접어들면서 열린 평창동계올림픽을 적극 활용해 당사자

인 북한뿐만 아니라 '주변 4강'을 모두 아우르며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획기적 전환기를 만드는 데 성공했다. 운전대를 잡은 문 대통령 옆에

김정은 위원장이 앉고 뒷좌석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가 자리 잡은 모양새다. 11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지난 9일 강원도 평창에서 열린 동계패럴림픽 개회식 사전 리셉션 환영사를 통해 "평창 동계올림픽이 '평화올림픽'으로 성공한 것은 대한민국에 너무나 큰 선물이 됐다"면서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는 현실이 돼 가고 있다. 평창에서 열린 올림픽과 패럴림픽, 또 평화를 위한 우리의 노력이 새로운 세계평화를 만들어 낼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2면에 계속) /김승호 기자 bada@



메트로신문 '2018 100세 플러스 포럼' 100세 시대 자산 불리기와 재테크

메트로신문이 오는 3월 28일 '2018 100세 플러스 포럼'을 개최합니다. 미국의 금리인상 기조와 저성장 지속으로 국내·외 경제는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저성장 터널이 길어지면서 경기가 좀처럼 활기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100세 시대에 대한민국 국민 모두 '장수 리스크'에서 자유롭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메트로신문은 '100세시대 자산 불리기와 재테크'를 모색하는 포럼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포럼은 '자산 불리기와 재테크'를 주제로 주식과 부동산 재테크 전략(세션1), 100세시대 자산 불리기와 재테크에 대해 토론(세션2)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식 투자전략과 정부 규제 속 부동산 투자, 기업공개(IPO) 전 엔젤투자 노하우를 접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가치투자'로 유명한 이채원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 사장, 프리 IPO 투자 전문가 정은현 퀴텀인베스트먼트 대표, 똑부러진 부동산 투자자문으로 유명한 안명숙 우리은행 WM자산센터 부장 등이 알토란 같은 강연을 펼칩니다.

이날 '100세 플러스 포럼'을 통해 주식과 부동산 등 재테크 전략을 접하시길 기대합니다.

- 행사명 : 2018 메트로 100세 플러스 포럼
- 주제 : 100세시대 자산 불리기와 재테크
- 일시 : 3월 28일(수) 08:30~13:00(VIP 티타임 08:30~08:55)
- 장소 :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 지하 1층 그랜드홀
- 문의·참가 신청 : 전화 (02)721-9826, e-메일 : forum@metroseoul.co.kr (사전등록 참가비 무료, 현장등록 5만원·오찬 제공)
- 주최 : 메트로신문

박진수 "매년 15% 고도성장... 내년 매출 30조"

(LG화학 부회장)

LG화학 기자간담회 에너지·물·바이오 등 신성장 동력 본격성장



박진수 LG화학 부회장. /LG화학

"2020년까지 연 평균 매출 15% 성장과 기술 고도화로 수익성 확보하겠습니다." 박진수 LG화학 대표이사 부회장은 지난 9일 충남 서산시 대산공장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 에너지·물·바이오·소재 등 신성장동력 분야의 본격적인 성장을 통해 지난해 25조6980억원이었던 회사매출액

을 내년에는 사상 최초로 30조원에 진입시키고, 내후년에는 35조원대도 돌파하겠다는 것이다. <관련기사 L7면> 2010년대 들어 유수의 글로벌 화학기업들의 매출 증가율이 1%를 채 넘지 못한다는 점에 비추보

면 매우 도전적인 목표다. 2010~2016년 독일 바스프의 성장률은 0.5%였고, 미국 다우케미칼(-1.8%), 일본 미쓰비시화학(-1.8%)은 오히려 뒷걸음질쳤다. LG화학도 같은 기간 0.9% 성장에 그쳤다. 박 부회장이 이처럼 고도성장을 자신할 수 있는 것은 미래에 대한 투자와 신성장동력 확보다. 박 부회장은 ▲과감한 투자로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시설투자: 3조 8000억원, R&D: 1조1000억원) ▲미래 성장을 위해 사업구조 고도화 ▲에너지, 물, 바이오, 차세대 신소재 집중 육성세에 나선다.

박 부회장은 "올해부터 2020년까지 늘어날 매출 10조원 가운데 반 정도가 전지 쪽"이라며 "나머지는 고르게 기초소재나 정보전자, 바이오 쪽이 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전지에서는 자동차 전지와 ESS(에너지저장장치)가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박 부회장은 "수주물량과 관련해 해구체적으로 자동차 업체와 물량을 발할 수 없지만 지난해까지 전지차 배터리 수주 잔고가 30개 회사로부터 42조원이고 올해도 조금씩 늘고 있다"고 말했다. <4면에 계속> /서산·양성운 기자

>> 1면 '강성노조의 그늘'서 계속

강성노조·낮은 생산성 등 제조업 전 분야에 나타나 해결 없인 韓경제 불투명

2010년에는 23만7000여대를 생산해 20만5000여대를 유럽에 수출했다.

그러나 2013년 GM이 유럽시장을 현지 자회사 오펔, 북스홀에 맡기고 웨보레 브랜드를 철수했다. 크루즈를 포함한 한국 공장의 유럽 수출 물량이 줄어든 결정적 이유다. 이같은 부진을 막기 위한 신차 연구 개발등은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지난해 군산공장에서 생산한 크루즈는 모두 2만3000여대에 그쳤고 그나마 내리막을 걷던 수출 물량도 더 줄어 1만대 아래인 9466대로 떨어졌다.

완성차 업계 관계자는 "강성노조와 과도한 인건비, 낮은 생산성은 한국GM뿐 아니라 국내 자동차 산업을 비롯한 제조업 전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다"며 "이같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 경제의 미래는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핵담판 패싱 우려하는 '중·러·일'에 파견단

>> 1면 '평양서 운전대 잡은 文...'서 계속

북한의 핵 실험과 미사일 도발에 멀게만 느껴졌던 남과 북이 가까워지는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치 않았다.

지난 5일부터 1박2일간 평양을 다녀온 정의용 실장을 수석특사로 한대북특사단은 '4월 말 남북정상회담'이라는 큰 선물을 들고 왔다.

무엇보다 남북은 긴밀한 협의를 위해 정상간 '핫 라인'(Hot Line)을 설치하기로 뜻을 모았다. 첫 통화는 4월 말 예정된 남북정상회담에 앞서 실시하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은 임중석 비서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를 꾸려 만반의 준비를 할 것을 지시했다. 준비위는 과거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시절 꾸렸던 경험을 토대로 통일부 등 관련 부처가 폭넓게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5월에 만날 가능성이 높은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간 북미정상회담의 장



대북 특사단 대표로 평양을 간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5일 평양 조선노동당 본사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악수를 나누고 있다. 김 위원장이 왼손에 문 대통령의 친서를 들고 있다. 김 위원장 뒤로 동생인 김여정 조선노동당 제1부부장이 보인다. /청와대

소는 남측 제주도과 분단의 상징인 판문점, 그리고 중립국인 스위스 등이 거론되고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판문점이 유력한 대안이 되지 않겠느냐"고 전했다.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과 북한간 소통은 기존에 알려진 '뉴욕채널' 외에도 여러 채

널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 만큼 장소와 주요 의제 등 실무 논의는 이들 채널을 활용하되 사안에 따라 우리쪽과도 긴밀한 협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2박3일 일정으로 워싱턴을 방문한 정 실장과 서훈 국정원장 일행이 북미간 정상회담 수락 등 트럼프 대통령과의 면담

내용에 대해 지난 9일(한국시간) 백악관에서 직접 공식 발표한 것을 놓고도 북한에 대한 미국측의 바뀐 태도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는 평가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정 실장 일행과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등 백악관 참모진 20여 명이 백악관 내에서 대화하는 시간을 15분 가량 앞당겨 우리측 일행을 만나는 파격을 선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에 대해 10일(현지시간) "엄청난 성공을 거둘 것이다. 북한이 아주 잘 해나가리라 본다"고 말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한편 이날 오후 늦게 귀국한 정 실장, 서훈 원장은 문 대통령에게 방미 결과 등을 설명한 후 정 실장은 12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중국을, 서원장 역시 같은 기간 일본을 각각 방문한다. 정 실장은 중국 일정을 마친 후 곧바로 러시아로 향한다. 다만 이들이 해당국 정상들과 만날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KB 금융그룹

모두의 희망 잘 아니까 KB손해보험이 안아드릴게요!

새 출발 새 가족 새 차 새 집...
얼마나 설레는지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기대되는지 아니까
KB손해보험이
든든하게 안아드릴게요
희망을 안다
희망으로 안다



국민의 평생 희망파트너

KB 손해보험

www.kbinsure.co.kr 고객센터 : 1544-0114

KB 윤종규-신한 조용병 생보사 인수 맞불경쟁?

ING생명 연내 매각 가능성에
신한, 인수 올인·KB, 인수 타진



(왼쪽)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오른쪽)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KB금융지주에 이어 신한금융지주가 국내 보험사 인수합병(M&A) 시장에 가세했다. '알짜배기' ING생명이 연내 시장 매물로 나올 가능성이 커지면서 양사가 잇단 예비 실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새 회계기준 도입으로 보험사 자본확충 부담이 커진 가운데 경영 악화로 인해 KDB생명, 현대라이프, MG손보 등도 시장 매물로 거론된다는 점에서 향후 국내 보험업계의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신한지주는 최근 ING생명 인수를 위한 예비 실사에 착수했다. ING생명의 경영지표 등을 구체적으로 살핀다는 방침이다.

현재 신한지주는 지난해 말 기준 자산 30조원 규모의 신한생명을 보유한 상황으로 규모가 엇비슷한 ING생명을 인수할 경우 신한지주 생명보험 부문은 단숨에 업계 상위권으로 도약하게 된다. 강화된 생보 사업 외 은행 수입 등 시너지 창출로 그룹 전체의 이익 상승을 꾀한다는 계획이다.

신한지주는 지난 9일 공시를 통해 "그룹의 사업다각화 차원에서 M&A 추진을 검토하는 것은 맞다"면서도 "ING생명 지분 인수와 관련해 확정된 사항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말을 아꼈다.

◆ING생명 인수 시 자산규모 60조원

ING생명은 지난해 연말 기준 자산규모 31조4000억원, 당기순이익 3402억원을 기록했다. 보험사 자본적정성을 보여주는 보험금 지급여력(RBC)비율은 455%로 업계 최상위 수준이다.

현재 최대주주는 사모펀드(PEF)운용사인 MBK파트너스로 특수목적법인 라이프투자유한회사를 통해 지분 59.1%를 가지고 있다. 지난 2013년 1조8400억원에 ING생명의 주식 100%를 인수한 MBK파트너스는 이후 지금까지 지분 40.85%를 매각해 1조1000억원 및 배당금 5000억

원 이상을 챙긴 것으로 확인된다. 지난 2016년 한 차례 매각을 시도한 바 있으나 중국 측 매매인들이 사드(THAAD) 갈등을 이유로 포기하며 실패했다.

투자업계 관계자는 "ING생명은 새로운 회계제도(IFRS17) 도입에도 건전성 지표가 훼손될 가능성이 낮다"며 "현재 생보사를 보유한 금융투자사들로서는 ING생명 인수로 시너지를 기대할만 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시장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높은 인수가가 걸림돌로 꼽힌다. 실제 MBK파트너스는 현재 고(高)배당 정책을 통해 매각가를 높이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MBK가 목표로 하는 매각가는 3조원대로 알려졌다.

◆잇단 보험사 매물로 업계 지각변동 예상

그러나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비은행 부문 강화를 통한 수익 다변화 전략 의지가 상당히 강한 것으로 평가된다. 조 회장은 지난해 창립 기념식에서 "시장을 예의주시하면서 기회가 왔을 때 M&A를 비롯한 다양한 방안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과감하고 빠른 사업 포트폴리오 업그레이드'를 강조했다.

이는 앞서 보험사 인수 의사를 타진한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역시 마찬가지. 윤 회장은 올해 경영 계획에서 "국내 M&A를 통한 그룹 포트폴리오 완성을 위해 대형 모멘텀 M&A를 지속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실제 올해 KB생명 보험 수장으로 지난 2015년 LIG손보(현 KB손보) 인수 이후 통합 등을 총괄했던 허정수 사장을 낙점했다.

/이봉준 기자 bj35sea@

S코드 도입... 거수기 벗고 '지배구조 선진화' 단추핀다

(스튜어드십 코드)

2018 新 주총시대

<下> '주주권 강화' 거스를 수 없는 대세

자산운용·자문사등 27곳 도입
의결권 행사내용·이유 공시해야
S코드 도입 전 '부결' 사례 많아

올해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연기금 등 주요 기관투자자가 기업의 의사결정에 참여토록 유도하는 의결권 행사 지침)가 도입된 후 첫 주주총회가 열린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약속한 기관은 의결권 행사 이유를 무조건 공시해야 하는 만큼 상장사 의안에 대한 명분 없는 찬성 혹은 반대가 불가능해졌다.

상장사 입장에서 주총 안건 결의가 보다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오히려 국내 주요 그룹사들은 주주 권리 강화를 약속하고 나섰다. 주주권 강화 흐름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

◆ 명분 없는 안건 "통과 더 어려워질 것" 11일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 따르면 총 24개 자산운용사(PEF 등 포함)가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했다. 또 2개 자문사, 1개 증권사를 포함해 총 27개사가 스튜어드십 코드에 참여하고 있다. 향후 도입을 약속한 기관도 42개사에 이른다.

27개 기관투자자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이후 첫 주총을 맞이한다.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했다는 것은 이를 전담하는 인력과 제도를 모두 구축했다는 의미다. 아울러 웹페이지를 통해 이번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내용과 이유에 대해서 빠짐없이 공시해야 한다. 안건에 대한 명분 없는 찬반이 불가능한 이유다.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기관 투자자 목록(2018년 3월6일 기준)>

구분	기관투자자명	합계
자산운용사 (PEF등 포함)	·뉴레이크엘라이언스매니지먼트(주) ·KB인베스트먼트 ·KB자산운용 ·동양자산운용(주) ·메리츠자산운용(주) ·미래에셋자산운용(주) ·스틱인베스트먼트(주)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주) ·와이케이에이인베스트먼트(주) ·웨일인베스트먼트(주) ·이상파트너스(주) ·(주)엔베스터 ·(주)유니스캐피탈코리아 ·(주)케이케이엘파트너스 ·(주)에스인베스트먼트 ·컴퍼니케이파트너스 ·큐캐피탈파트너스 ·트러스트자산운용(주) ·하이자산운용(주)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 ·한국투자신탁운용 ·Dalton Investments LLC ·Oasis Management Company ·Robeco	24개사
자문사	·서스틴베스트 ·제브라투자자문	2개사
증권사	·KB증권	
Total		27개사

주1) 3월8일 정정사항 : 자산운용 (25개사→24개사로 정정), 증권사(0개사→1개사로 정정)

한국지배구조원이 2014년부터 2017년 상반기 주총을 분석한 결과 새도보팅(Shadow voting·의결권 대리행사제도)이 이용되고,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전에도 이사회 안건이 부결된 사례가 많았다. 조사결과 161사에서 개최한 총 220회의 주총에서 이사회 제안이 부결된 것이다. 사내이사선임 부결건이 전체의 37.7%로 가장 높았다.

더욱이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이 30% 이상인 상장사의 부결 사례도 38.6%(85사)에 달했다. 최대주주 지분율이 50% 이상인데도 이사회 제안 안건이 부결된 회사(25사)가 존재했다. 대부분 최대주주의 의결권이 3%로 제한되는 감사(위)선임 안건이 문제였다. 즉, 외부 소수주주가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정일목 한국지배구조원 연구원은 "최대주주의 의결권이 제한되는 감사(위)선임의 건은 분석대상 기간 동안 지속적

으로 부결 사례가 확인되고 있는데 이는 기관투자자를 비롯한 주주들이 적극적으로 충실한 의결권 행사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회사가 제안한 안건의 적절성에 대해 보다 엄격하게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해석

된다"며 "올해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에 따라 기관이 적극적으로 의결권 행사를 실시할 경우 이러한 추세는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주요 그룹, 전자투표제 도입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으로 개인 및 외국인 주주의 비중이 높은 주요 그룹사들은 안건 결의가 더욱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하지만 이들은 이번 주총에 앞서 '주주권한 확대'를 약속하고 나섰다. 주주권한 강화를 통한 지배구조 선진화라는 새로운 흐름에 적응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먼저 SK그룹은 주총 분산개최를 통해 주주들의 참여가 제한되는 부작용을 차단키로 했다. 또 전자투표제도를 도입해 해외에 있거나 바쁜 일정으로 주총 참석이 불가능한 주주들에게 의결권 행사 기회를 제공했다. 앞서 SK는 '거버넌스 위원회'를 설립해 중요한 투자 및 합병·분할, 재무 관련 사항 등 주요 경영 사안을 사전 심의하도록 했다.

한화 CJ그룹 역시 상장 계열사의 주총을 분산해 개최하고, 전자투표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현대차는 사외이사 후보를 주주들로부터 추천을 받아 선임하는 방식의 주주권 강화를 약속했다.

정 연구원은 "국제기구인 G20·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업지배구조원칙(corporate governance principles)에서도 2015년 개정을 통해 기관의 수탁자 책임을 강조하는 새로운 장을 구성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주주권 행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경성규범(hard law·강한규제)과 연성규범(soft law·자율규제)들이 개정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2017년을 기준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4개 국가가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하고 있다. 정부가 코드를 도입한 나라는 홍콩, 일본, 케냐, 영국 등 4개 국가이고 한국을 비롯한 나머지 국가는 모두 기관이 자율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손엄지 기자 sonumji301@metroseoul.co.kr

"이름만 전달... 채용 관여 안해"

최흥식 금융감독원장
하나은행 채용 비리 의혹 해명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하나은행 채용비리 의혹에 대해 단순히 전달했을 뿐 채용과정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채용과정에 있어 단순 전달과 추천, 압력행사를 정확히 가릴 수 없다는 점에서 최 원장을 둘러싼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일단 전달했다는 사실 관계는 시인한 셈이 됐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 원장은 최근 불거진 채용청탁 의혹과 관련해 "하나금융지주 사장으로 있을 때 외부에서 채용과 관련한 연락이 와서 단순히 이를 전달했을 뿐 채용과정에는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하나금융 사장으로 있던 2013년 대학 동기로부터 자기 아들이 하나은행 채용에 지원했다는 전화를 받고 은행 인사담당 임원에게 그의 이름을 건넨 바 있다. 그는 최종 합격했으며, 현재 하나은행 모 지점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 원장은 은행 측에 이름을 단순히 전달했을 뿐 점수 조작 등 부당한 비리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올해 적발한 하나은행 채용비리 역시 이런 기준으로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은행권 채용비리 검사에서



최흥식 금융감독원장.

22건을 적발해 검찰에 통보했으며, 이 중 하나은행이 13건을 차지했다.

금감원은 "추천자 명단에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추천 대상자 모두를 부정채용으로 본 것이 아니다"라며 "면접점수가 조작된 것으로 확인되거나 채용요건에도 부합하지 않음에도 기준 신설 등을 통해 부당하게 합격시킨 사례만을 적발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하나은행의 추천인 명단에 기재된 총 55명 중 6명에 대해서만 부정채용으로 적발해 검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은 피감기관인 하나은행에 "최흥식 채용비리" 증거를 밝혀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또다른 논란이 예상된다. 금감원 검사때 발견하지 못했던 증거를 증명해 달라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안상미 기자 smahn1@

지구와 인류의 미래를 위해 어떤 기술이 필요할까요?

사람의 힘만으로 불가능한 일이 있기에
하지만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기에
두산은 원격으로 제어하는 무인굴삭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류가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기술
자금은 사람을 돕는 기술이지만
미래엔 사람의 생명을 지켜줄 꼭 필요한 기술입니다

두산은 지금 내일을 준비합니다

두산건설 소형건설장비 시장영유율 세계 1위

원격제어 첨단 무인굴삭기 CX

두산은 시장영유율 세계 1위의 소형건설장비와 원격제어 첨단 무인굴삭기 개발로 지구와 인류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LG '코드제로 A9' 누적판매 20만대 돌파

국내 출시 8개월만의 기록
청소시 편의성·성능 높여 인기

LG전자의 상중심(上中心) 무선청소기 '코드제로 A9' (사진)이 국내 출시 8개월 만에 누적 판매 20만 대를 돌파했다.

코드제로 A9이 높은 인기를 이어가는 데에는 제품의 기본기인 청소 성능이 뛰어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한국소비자원이 실시한 무선청소기 성능평가에서 코드제로 A9은 바닥 먼지, 바닥 틈새, 벽 모서리 등을 포함한 5개 청소 항목에서 '매우 우수'를 받았다.

청소기를 사용하다 보면 배출구 쪽 필터에 먼지가 쌓이면서 공기의 흐름을 막아 사용 초기보다 흡입력이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LG전자는 코드제로 A9에 '2중 터보 사이클론' 기술을 적용해 공기 속의 미세한 먼지까지 분리해 흡입력을 오랫동안 유지시킨다.

거치대를 벽에 걸지 않고도 제품을 간편하게 보관하는 '자립형 거치대'도 인기다. 코드제로 A9 거치대는 자립형과 벽걸이형 모두 가능하다.

또 ▲바닥 청소 때 바람이 사용자의 반대편을 향하도록 한 '배기구 설계' ▲고객 키에 따라 청소기의 길이를 90cm부터 112cm까지 조절할 수 있는 '4단계 길이조절 연장관' ▲일반, 강, 터보 등 3가지 청소



모드를 버튼 한 번만 눌러 작동할 수 있는 '원터치 버튼' ▲교체 시 최대 80분까지 끊임 없이 청소할 수 있는 '탈착식 배터리' 등으로 편의성을 크게 높였다.

코드제로 A9은 제품뿐 아니라 제품을 포장하는 패키지에서도 고객들의 편의를 고려했다. LG전자는 고객들이 포장 패키지를 버리지 않고 청소기 액세서리 보관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LG전자는 코드제로 A9 포장 패키지의 친환경성, 경제성 등을 인정받아 'iF 디자인 어워드 2018'에서 '포장디자인부문 본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LG전자는 한국과 대만에 이어 지난달에는 호주에도 코드제로 A9을 출시했다. 올해는 중국, 러시아, 미국 등으로 출시 국가를 더욱 늘려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LG전자는 최근 경북체육회 소속 여자 컬링팀을 4년간 공식 후원하고, 컬링팀이 출연하는 LG 코드제로 광고를 이달 중에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서훈 기자 yuni2514@

포스코-삼성SDI

칠레 리튬프로젝트 사업자 선정

남미로 이차전지 소재사업 진출
연간 3200t 고용량 양극재 생산

포스코와 삼성SDI가 손잡고 남미 이차전지 소재 사업에 진출한다.

포스코는 삼성SDI와 함께 꾸린 컨소시엄이 지난 9일(현지시간) 칠레 생산진흥청(CORFO)이 주관하는 리튬프로젝트에 최종 사업자로 선정되어 통보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리튬을 원료로 현지에서 양극재를 생산하는 사업이다. CORFO는 지난해 5월부터 양극재 사업자 선정을 진행했다. 이번 입찰에는 7개국 12개 기업이 참여했다.

포스코-삼성SDI 컨소시엄은 칠레 북부 메히요네스시(市)에 양극재 생산 합작



포스코-삼성SDI 양극재 합작법인 위치.

법인을 설립한다. 투자액은 575억원이다.

합작법인은 리튬을 원료로 2021년 하반기부터 연간 3200t 규모의 전기차용 고용량 양극재를 생산한다. 칠레는 세계 최대 리튬 생산 국가다.

앞서 포스코는 지난 1월 중국 이차전지 소재 시장에 진출했다. 현지 화요코발트

사와 양극재 및 전구체 생산공장 합작 계약을 통해서다.

포스코는 "이번에 남미시장까지 이차전지 소재 사업영역을 확대하게 되면서 글로벌 양극재 생산업체로 자리매김하게 됐다"고 밝혔다.

삼성SDI도 양극재를 장기간 안정적으로 공급받아 배터리 원료수급 경쟁력을 강화하게 됐다.

최근 세계 각국의 친환경 정책이 강화됨에 따라 전기차와 산업용 에너지저장장치(ESS), IT용 대용량 배터리 등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리튬이온전지의 필수 소재인 양극재 시장도 2016년 21만톤에서 2020년에는 86만톤까지 4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양사의 성공적인 글로벌 합작사업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삼성전자 'iF디자인어워드'서 55개 수상

금상 4개 등 역대 최다 수상 실적

삼성전자가 독일의 국제 디자인 공모전 'iF 디자인 어워드 2018'에서 금상 4개를 포함해 총 55개의 상을 수상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삼성전자의 역대 최다 수상 실적이다.

제품 부문에서는 프리미엄 빌트인 냉장고(모델명 BRR9000M)를 비롯해 게이밍 PC인 '데스크탑 오디세이', 화면 비율 32대 9의 49인치 QLED 게이밍 모니터 'CHG90', 급속 무선충전기 컨버터블과 배터리팩 등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 갤럭시 S8과 S8+, 갤럭시 노트8, 액자형 TV인 '더 프레임', QLED TV 'Q', 프리미엄 주방가전 '셰프 컬렉션 포슬린', 무선청소기 '파워건 VS8000' 등도 차별화된 디자인으로 상을 받았다.

컨셉트 부문에서는 TV 시청 외에도 항상 시각적인 아름다움과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컨셉트인 '에어 퀄리티 비주얼 라이제이션' 등이, 커뮤니케이션 부문에



삼성 파워 액세서리 EP-PG950, EB-PG950. /삼성전자

서는 카메라의 시각적 정보를 활용해 사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빅스비 비전'이 수상했다.

이밖에 패키지 부문에서는 360도 측면에서 제품의 스토리를 전달하고 하나의 브랜드 이미지를 제공하는 '웨어러블 앤드 모바일 프리미엄 액세서리 패키지 아이덴티티'가, 서비스디자인 부문에서는 실시간 원격 진료 서비스인 '건강 Q&A'가 각각 상을 받았다.

지난 1953년부터 독일 인터내셔널 포럼 주관으로 진행되는 'iF 디자인 어워드'는 독일의 '레드닷'(reddot), 미국의 'IDEA'와 함께 세계 3대 디자인 공모전으로 꼽힌다. /정은미 기자

현대 모터스튜디오 고양 'iF 디자인상' 금상

현대자동차의 자동차 체험시설인 현대 모터스튜디오 고양은 독일 '2018 iF 디자인상'에서 디자인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11일 현대차에 따르면 올해 iF 디자인상에서 현대 모터스튜디오 고양 내 '전시 체험공간'이 실내 건축 부문 금상과 UX·UI(사용자 경험·사용자 환경) 기획&디자인 커뮤니케이션 부문 본상을 받았다. 또 현대 모터스튜디오 고양 내 전시물인 '키네틱스컬프처'는 실내 건축 부문 본상에 선정됐다.

현대 모터스튜디오 고양의 전시체험공간은 강철을 녹이는 시점부터 차가 질주하는 순간까지 자동차 제작과정을 담은 상설전시존과 차량 전시, WRC(월드랠리 챔피언십) 등 다양한 주제로 꾸며진 테마 전시존으로 이뤄졌다.



현대 모터스튜디오 고양 내 '전시체험공간'.

키네틱스컬프처는 1411개의 알루미늄 기둥이 영상, 음향, 조명과 함께 어우러져 유기적인 움직임을 선보이는 전시물로 현대차의 디자인 철학을 상징한다.

독일 국제포럼디자인이 주관하는 iF 디자인상은 레드닷, IDEA 디자인상과 함께 세계 3대 디자인상 중 하나로 꼽힌다. /양성운 기자

'갤노트8'로 평창패럴림픽 감동담다

삼성전자

선수들에 패럴림픽 패키지 제공

지난 9일 강원도 평창 올림픽스타디움에서 열린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 개막식에서 전세계 패럴림픽 선수들이 '갤럭시 노트8'로 개막식의 감동을 기록했다.

11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패럴림픽 사상 최초로 갤럭시 노트8을 포함한 패럴림픽 패키지를 국제 패럴림픽 위원회(IPC)에 제공, 참가선수들이 추억을 기록하고 전 세계인과 감동을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패럴림픽 패키지에는 갤럭시 노트8을 포함해 '급속 충전 배터리팩'과 '전용 케이스'가 포함돼 있다. 전용 케이스를 휴대폰에 장착할 경우, 패럴림픽 UX로 변경된다.



지난 9일 강원도 평창 올림픽스타디움에서 열린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 개막식에서 '갤럭시 노트8'로 개막식의 감동을 기록하고 있는 대한민국 선수단. /삼성전자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 무선통신 및 컴퓨팅 분야 공식 파트너 삼성전자는 패럴림픽 기간 동안 '삼성 패럴림픽 쇼케이스' 운영, '삼성 패럴림픽 블로거' 운

영, '2018 평창 공식 앱' 소개 등 다양한 활동으로 참가 선수들과 전세계 팬들에게 '불가능을 가능케 하라'는 정신을 전파할 계획이다. /정은미 기자 21cindium@

인도 진출 20주년 영상 '유튜브 리더보드' 1위

LG전자

세계 여성의 날 맞아 구글이 선정

LG전자는 인도 진출 20주년을 기념해 제작한 영상이 세계 여성의 날(3월 8일)을 맞아 구글이 선정한 '유튜브 광고 리더보드' 1위에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유튜브 광고 리더보드로 선정된 영상들은 시청자들로부터 사랑받고 화제가 된 것은 물론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광고로 평가받는다. LG전자의 광고 영상이 유튜브 광고 리더보드 1위로 선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LG전자가 지난해 5월 공개한 이 영상은 4주만에 유튜브 조회수 2500만뷰, 5개월 만에 1억뷰를 돌파하는 등 좋은 반응을 얻은 바 있다.

약 4분 분량의 영상은 할머니 밑에서 자란 소녀가 우주비행사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담고 있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별에 있다고 믿는 소녀는 우주비행사를 꿈꾸게 됐고, 어머니는 어려운 형편이지만 TV를 팔아 딸의 꿈을 돕는다. 결국 우



LG전자 인도 진출 20주년 기념 동영상 중 한 장면. /LG전자

주비행사의 꿈을 이루게 된 딸은 어머니에게 LG 올레드 TV를 선물한다는 내용이다.

LG전자는 이 영상이 담은 가족애가 네티즌들의 공감을 이끌어 내 좋은 결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했다.

LG전자는 영상 기획 단계부터 인도뿐 아니라 소비자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적극적으로 담으려고 했다.

LG전자는 1997년 인도 시장에 진출한 이후 ▲주거환경과 생활문화를 고려한 현지 맞춤형 특화제품 출시 ▲맞춤형 사회공헌활동 전개 등 철저한 현지화 전략을 펼쳐오고 있다. /정은미 기자

>> 1면 '박진수 "매년 15%..."서 계속

올해 고도성장 도약의 원년 시설·R&D에 최대금액 투자

이어 "중국은 지금 당장 성과를 이야기하기 조심스럽지만 장기적으로 우리 기술력이 성장하고 있어 언제든 기회는 올 것"이라고 말했다.

박 부회장은 올해 과감한 투자로 고도성장 도약의 원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먼저 올해 시설(자본투자)과 R&D에 사상 최대 금액을 투자한다. 시설투자에는 전년 대비 52%가 증가한 3조8000억원을, R&D에는 전년 대비 22.2%가 증가한 1조1000억원을 집행한다.

이를 통해 ▲기초소재부문의 고부가가치업 및 관련 원료 확보를 위한 신·증설 ▲자동차전지 분야 대형프로젝트 양산 대응 및 핵심 역량 확보를 위한 기반 확대 ▲소형 및 ESS전지 경쟁 기반 강화 ▲기능성 필름 및 수처리 RO(역삼투압)필터 등의 성장사업 육성 ▲고용량 양극재 제품 경쟁력 확보 등 핵심사업 및 신성장동력 분야의 역량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서산·양성운 기자

“약정노예 끝?”... ‘갤 S9’, 완전자급제 신호탄 되나

삼성전자, 자급제 폰도 동시 출시
이통사·약정없이 유통매장서 구입
알뜰폰업체 할인 등 고객몰이 한창
완전자급제 논의 불 붙일지 관심

삼성의 ‘갤럭시S9·갤럭시S9플러스’가 프리미엄 스마트폰 중에서는 처음으로 자급제 단말기로도 출시됐다. 갤럭시S9의 호응에 따라 앞으로 자급제 관련 시장 형성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지난 9일 사전예약 하는 갤럭시S9이 프리미엄 스마트폰 자급제 시장에 포문을 열었다.

이전까지 국내에서 스마트폰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 대리점을 거쳐 약정을 맺어야 했다. 일정 기간 이용하는 약정을 맺으면, 공시지원금 등의 혜택을 받아 가격 할인을 받고 스마트폰을 구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급제폰은 이 같이 이동통신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유통매장이나 제조사를 방문해 가전제품을 구입하듯이 스마트폰을 구입할 수 있다. 자급제란 휴대전화 판매와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을 분리하는 제도다.

시장조사기관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SA)의 추정치에 따르면 2016년 기준 국내 스마트폰 판매량 중 자급제의 비율은 8%를 기록했다. 글로벌 평균인 61%보다 현저히 낮은 수치다.



서울 광화문 KT스퀘어에 삼성전자 신제품 플래그십 스마트폰 ‘갤럭시S9’이 전시돼 있다.

/연합뉴스

국내에도 자급제폰은 있었지만 최신 제품이 없고, 이동통신사에서 구입하는 스마트폰보다 출고가 10% 정도 비쌌다. 살 수 있는 곳도 일부 유통망 등으로 제한됐다.

최신 스마트폰이 자급제폰으로 동시에 나온 것은 갤럭시S9 모델이 처음이다. 또 어디에서 구입하든 동일한 출고가로 구입할 수 있다. 다만, 자급제폰 용도로 구입 시 공시지원금은 받을 수 없다. 약정할인 선택 시 25% 요금할인은 이동통신사 대리점과 똑같이 받을 수 있다.

갤럭시S9 자급제폰은 삼성디지털프라

자, 삼성닷컴뿐 아니라 하이마트 등 대형 가전 매장과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도 판매 손쉽게 구매할 수 있다.

유통망은 추가 사은품 증정, 할인 쿠폰 증정, 포인트 적립 등으로 이용자 눈길 끌기에 나섰다. 온라인몰 11번가는 갤럭시S9 자급제폰 예약구매자에게 카드사 9% 할인 쿠폰(최대 20만원), 최대 22개월 무이자 할부, OK캐시백 최대 3만 포인트 적립, T 멤버십 최대 3천 원 차감할인 등을 제공했다. 소셜커머스 티몬과 위메프도 카드사 9% 즉시할인, 적립금 3만원을 제공한다. 하이마트는 신용카드 최대 9% 청구할인,

L포인트 5만원 지급 혜택을 지급한다.

평소 이동통신사의 약정이 부담됐던 소비자는 자급제 모델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원하는 통신사에서 유심만 구입해 끼우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개통 절차도 간편하다. 이동통신사의 선택제 애플리케이션(앱)도 없다.

다만, 기기값이 부담된다면 이동통신사의 할부가 부담이 될다. 그러나 할부 기간에 따른 이자는 6% 가까이 부과된다. 사실상 제품 가격이 더 비싼 셈이다.

완전자급제 스마트폰으로 인해 알뜰폰 업계도 모처럼 활기를 띠고 있다. 비싼 요

금제가 부담스럽다면 자급제 스마트폰을 구입해 요금 저렴한 알뜰폰 유심요금제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알뜰폰 업체인 헬로모바일은 갤럭시S9 출시에 맞춰 이달 한 달간 유심(USIM) 요금제를 할인 가격에 판매하고 있다. 에넥스텔레콤은 이날 자급제 시장 활성화에 대비해 음성, 문자, 데이터를 자유자재로 조합할 수 있는 DIY형 요금제 120개를 12일 출시한다고 밝혔다.

DIY형 내맘대로요금제는 고객의 입맛에 맞게 음성, 문자, 데이터 사용량을 스스로 선택하여 요금제를 설계할 수 있도록 꾸렸다. 음성은 ▲100분 ▲200분 ▲300분 ▲400분, 문자는 ▲100건 ▲200건 ▲500건 ▲700건 ▲1000건, 데이터는 ▲250MB ▲500MB ▲1GB ▲2GB ▲3.5GB ▲7GB 중 선택할 수 있다.

음성은 초당 1.8원, 문자는 건당 20원, 데이터는 MB당 20.48원(사용량에 따라 할인 적용)이 각각 적용되며, 총 120개 요금제로 조합이 가능하다. 이용자가 음성 100분, 데이터 250MB 요금을 조합하면 월 이용료는 7500원(부가세 별도)에 문자 100건을 추가하면 1000원이 추가되는 방식이다.

한편, 현재 국회에서는 단말기 완전 자급제와 관련된 법안이 여러 건 발의돼 있다. 업계 관계자는 “갤럭시S9 자급제폰의 시장 반응이 향후 완전 자급제 도입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나인 기자 silkni@metroseoul.co.kr

배터리 절감기술로 ‘갤S9’ 시간 55% ↑

KT 최대 4시간 가량 증가
LTE 가입자, 업그레이드 없이
배터리 사용시간 증대 효과

KT는 국내 최초로 롱텀에볼루션(LTE) 전국망에 적용된 배터리 절감 기술(C-DRX)을 최적화하고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최대 55%까지 늘렸다고 11일 밝혔다.

KT는 ICT 표준화 및 시험인증단체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시험에서 삼성 프리미엄 스마트폰인 갤럭시S9 모델

로 배터리 절감 효과를 테스트한 결과 데이터 이용시간이 최대 55%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KT의 LTE 가입자라면 별도의 단말 업그레이드 과정 없이 데이터 배터리 사용시간 증대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됐다.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서 갤럭시S9 모델로 배터리 절감 기술 적용 전후 배터리 절감 효과를 테스트한 결과 이용시간이 최대 3시간 49분(55%)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동일한 환경에서 동일 서비스(유튜브

동영상 스트리밍)를 지속이용해 테스트한 결과 C-DRX를 적용하지 않은 갤럭시S9의 경우 최소 7시간, 최대 7시간 50분 지속된 반면, C-DRX를 적용한 갤럭시S9의 경우 최대 10시간 49분간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C-DRX는 배터리 용량을 물리적으로 늘리는 것이 아닌 네트워크 기술을 통해 배터리 사용시간을 극대화하는 기술이다.

데이터 연결 상태에서 스마트폰의 통신기능을 주기적으로 저전력 모드로 전환시켜 배터리 사용량을 줄여준다.



모델들이 KT의 배터리 절감 기술을 소개하고 있다.

/KT

기존 네트워크 환경에서는 데이터 이용중에 스마트폰 모뎀과 통신사 기지국 간 통신이 끊김 없이 지속된 것에 비해

C-DRX 환경에서는 데이터 송수신 주기를 최적으로 줄여 배터리 소모량을 줄일 수 있다. /김나인 기자

“U+우리집AI’에서 ‘YBM 영어동화’ 무료로 공부하세요”

LG유플러스 영어교육 서비스

인공지능(AI) 스마트홈 서비스에 아이들을 위한 영어교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LG유플러스는 인공지능 스마트홈 서비스 ‘U+우리집AI’에 아이들을 위한 영어교육 서비스인 ‘YBM 영어동화’와 NBA 경기 정보 확인이 가능한 ‘NBA 농구 소식’ 등 신규 기능을 제공한다고 11일 밝혔다.

YBM 영어동화는 영어동화를 들으며 아이들이 쉽고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도록 제작된 교육 서비스다. U+우리집AI 고객에게는 별도 이용료 없이 무료로 제공된다.

이 서비스는 수준 별로 구성된 27개의



모델이 LG유플러스의 ‘YBM 영어동화’ 기능을 소개하고 있다. /LG유플러스

영어동화에 대해 매 진도마다 영어문장과 함께 한글로 된 줄거리 설명을 해준다. 설명이 끝나면 아이들이 직접 동화 속 주요 문장을 따라 하면서 영어 듣기와 말하기를 함께하는 학습을 할 수 있다. 영어

읽기 학습을 병행하고 싶은 경우에는 YBM 영어동화 교재도 이용할 수 있다.

특히 YBM 영어동화 서비스는 ‘초통령’(초등학생들의 대통령)으로 불리는 ‘보니하니’의 목소리로 콘텐츠가 제작됐다.

또 매 강의가 끝날 때마다 ‘보니하니의 씽킹토크’으로 보니하니가 서로 간에 토론을 진행해 아이들이 다양한 사고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이와 함께 부모들은 ‘YBM 영어 for LG유플러스’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매일 진행되는 아이들의 학습 진도를 확인하고 그날의 핵심 내용이 요약된 ‘코칭카드’를 제공 받을 수 있다.

이 앱은 ‘구글플레이’와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김나인 기자

2018년 고부가가치 직종 전문인력 양성 직업교육훈련

여성가족부·교육노동부 지정 남부여성새로일하기센터

웹콘텐츠디자이너 양성과정 교육생 모집

교육기간	3월 22일 ~ 8월 10일(월-금 14:00-18:00)
교육내용	그래픽디자인(포토샵, 일러스트, 편집디자인) 웹퍼블리싱(html5, css, 워드프레스) 색채학, 쇼핑몰 제작, 현장실습
참가대상	초대졸 이상 취업희망 여성 *20~30대 청년층 6개월이내 졸업예정자 참여가능
접수기간	2018년 3월 20일(화) 18시까지(연일접수 가능)
접수방법	방문 또는 이메일접수(nambu@seoulwomanup.or.kr)

※ 본 과정은 여성가족부가 지원하는 직업교육훈련으로 학업을 희망하는 분들의 신청 가능합니다.

서울특별시남부여성발전센터 남부여성발전센터
서울시 금천구 독산로 50길 23 ☎(02)802-0922 검색하세요~!

조용병 “여성인재 육성 확대”... 신한 쉬어로즈 ‘출동’

신한금융그룹

그룹 내 여성 본부장·최상위직급 부서장 상하위 직급간 코칭 등 ‘멘토링 프로그램’ 유연근무제 등 일-가정 양립지원도 강화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여성인재 육성을 위해 첫발을 뗐다. 그룹 여성리더 멘토링 프로그램인 ‘신한 쉬어로즈’를 출범해 여성인재를 확대하기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시행한다는 것.

◆ ‘여성 롤모델 필요’... 신한 쉬어로즈

신한금융지주는 11일 서울 중구 소재 한 호텔에서 그룹 내 여성 본부장과 최상위직급 여성 부서장 등 관계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그룹 여성리더 멘토링 프로그램인 ‘신한 쉬어로즈(Shinhan SHeroes)’ 출범식을 가졌다.

국내 금융권 최초로 신설되는 그룹 차원의 여성리더 육성 프로그램인 ‘신한 쉬어로즈’는 여성을 뜻하는 ‘She(쉬)’와 영웅을 뜻하는 ‘히어로(Hero)’의 합성어로 신한이 우수 여성인재를 그



신한금융지주회사는 서울 중구 소재 한 호텔에서 그룹 내 여성 본부장 및 최상위 직급 여성 부서장 및 관계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그룹 여성리더 멘토링 프로그램인 ‘신한 쉬어로즈(Shinhan SHeroes)’ 출범식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에서 조용병 회장(앞줄 왼쪽에서 7번째)과 행사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신한금융그룹

룹 내 여성인력의 롤모델이자 여성영웅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이는 신한금융의 여성인재 육성을 위한 첫 번째 추진 과제이기도 하다.

이 프로그램에는 국내 대표적인 여성 코칭 전문가인 국민대 경영학과 고현숙 교수를 비롯해 외부 여성리더 4명의 멘토로 꾸려진다. 이 멘토들은 그룹의 여성 리더들에게 리더십, 조직 운영, 네트워크 확장 등 관련된 맞춤형 멘토링을 실시하게 된다. 지주회사에선 여성 부서장 2명이 이 프로그램의 코디네이터로 참여한다.

‘신한 쉬어로즈’ 대상은 신한은행, 신한카드, 신한금융투자 등 그룹의 여성 본부장 및 최상위 직급의 여성 부서장들이다. 이들은 과정이 종료되면 그

신한금융지주회사는 11일 서울 중구 소재 한 호텔에서 그룹 내 여성 본부장 및 최상위 직급 여성 부서장 및 관계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그룹 여성리더 멘토링 프로그램인 ‘신한 쉬어로즈(Shinhan SHeroes)’ 출범식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에서 조용병 회장이 기념사를 하고 있다. /신한금융그룹

룹의 여성인력의 롤모델로서 후배 여성리더 육성을 위한 사내 멘토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신한금융은 이를 통해 그룹 내 여성 상·하위 직급간 코칭과 멘토링 등 지속적인 선순환 구조를 구축, 그룹의 여성인재 풀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조 회장은 이날 출범식에서 “그룹 내 여성 인재들이 동경심을 가지고 따를 수 있는 롤모델이 돼달라”고 주문하고 “사명감을 갖고 여성 인재 육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해나가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 조용병 “여성인재 육성 위한 로드맵 수립”

조용병 회장은 신한 쉬어로즈 뿐만 아니라 여성인재 육성을 위해 체계적인 로드맵 수립을 구상하고 있다.

이날 조 회장은 “VUCA(불확·변동성 크고 불확실한)시대에 발맞춰 조직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창의력과 유연성, 감성과 소통 능력이 풍부한 여성인재를 적극적으로 육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조 회장은 연초 진행된 신한경영포럼에서

‘그룹 경영리더 육성제도’ 선포와 함께 ‘여성 인재 육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어진 조직개편에서 ‘신한문화리더십센터’를 확대하고 ‘여성인재 육성’을 센터의 주요 역할로 명시해 우수한 여성 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를 위해 지주회사 내 여성 인재 육성을 위한 전담조직을 만들고, 지난 1월 정기인사에서는 지주회사 창립 이래 최초로 2명의 여성 부서장이 탄생했다. 이후 2개월여간 지주회사 주관으로 여성인재 육성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그룹 TF(태스크포스팀)가 운영돼 여성이 조직에서 성장하는데 겪게 되는 장애요소 등을 분석했다.

여성 인재 육성에 있어서의 주요 문제점으로는 ▲조직 내 여성 롤모델의 부재 ▲여성 리더의 네트워킹 및 리더십 발휘 기회 부족 ▲여직원의 특정업무 배치 어려움 ▲출산 및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 등이 지적됐다.

이에 TF는 직원 인터뷰와 설문조사 및 국내외 벤치마킹 사례 등을 참고해 ▲다양성에 기반한 조직문화 조성 ▲단계별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여성인재 육성 프로그램 개발 ▲우수한 여성인재를 적극 활용하는 유연한 인사제도 ▲경력단절을 방지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인프라 업그레이드 등 장·장기 개선과제를 발표했다. 이 과제들은 단기 및 중장기 관점에서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여성 리더 육성은 일회성 프로그램으로 해결되는 게 아닌 만큼 멘토링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여성인재 육성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시행할 것”이라며 “여성인력의 경력개발 지원과 함께 지난해 금융그룹 최초로 시행한 그룹 공동 유연근무제를 업그레이드하는 등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도 계속해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채신화 기자 csh9101@metroseoul.co.kr

퇴직 후 보험료 부담... 알뜰관리 비법은?

금감원 Q&A

Q:최근 정년퇴직을 했더니 보험료를 내기가 부담스럽습니다. 그렇다고 가입해 놓은 다양한 보험 계약을 무작정 해지하기엔 더 이상 보장을 못 받는다는 게 걱정됩니다. 보험계약을 관리하는 노하우가 있을까요.

A:경제 사정으로 인해 보험료를 내는 게 부담스러웠다면 계약은 유지하면서 보험금(보장내용)과 함께 보험료를 줄이는 ‘감액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감액제도를 신청하면 보험료가 줄어드는 만큼 보장내용도 줄어들기 때문에 변경되는 보장내용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또 계약자가 건강하다면 ‘건강채 할인 특약’을 이용하는 것도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일부 보험회사는 금연, 식단관리, 운동 등을 통해 피보험자

의 건강상태가 가입했을 때보다 보험사고 발생 가능성이 줄어들면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특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정한 건강상태 요건을 충족하는 가입자는 건강채 할인특약을 통해 최대 20%까지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과 관련해 중요한 사항을 제때 통지받고 싶다면 주소지도 정확히 기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계약자가 마지막으로 알린 주소로 등기우편 등을 보내 보험금 지급사실, 보험료 연체 사실 등 소비자가 알아야 할 사항을 전달합니다. 만약 이사 등으로 주소가 바뀌었다면 ‘금융주소 한번에’ 서비스를 통해 주소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여러 보험회사에 기록된 주소도 함께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주소변경 처리를 완료한 후 이 사실을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통지합니다. /채신화 기자

NH농협은행 ‘NH스마트고지서’

50만 돌파 경품 이벤트

NH농협은행은 NH스마트고지서 50만 회원을 돌파를 기념해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NH스마트고지서는 각종 청구서나 안내장을 스마트폰으로 자동알림 받고, 즉시 납부할 수도 있는 앱 서비스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1년 만에 가입자가 크게 늘어난 것은 실생활에 필요한 앱 개발과 간편한 가입절차 및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전개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벤트는 이달 말까지 3주간 실시한다. 대상자는 올해 NH스마트고지서를 가입하고, 아파트관리비 또는 NH농협생명 알림서비스를 신청한 고객이다. NH스마트고지서 이벤트 페이지에 응모하면 추첨을 통해 푸짐한 경품을 제공한다. /안상미 기자

NH농협금융지주, 中·동남아 보험시장 진출 본격화

생·손보사 신설, 조인트벤처 등 글로벌사업 창출

중국서 공소그룹 외국주주로 참여 미얀마 최초 진출로 시장선점도

NH농협금융지주가 중국과 동남아 보험시장 진출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NH농협금융은 11일 농협손해보험, 농협생명과 함께 그룹 차원에서 은행, 증권 등이 진출한 시장에 보험이 동반 진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해외시장에서의 포트폴리오를 강화하고 복합금융 기반의 글로벌사업 시너지를 창출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농협손보와 농협생명은 현재 해외점포가 전무한 상황이다. 2012년 농협공제에서 분리돼 보험시장에 진입한 보험 후발주자로 그간 보험시장 연착륙과 경영안정화에 주력하였기 때문에 글로벌 진출에 역력이 없었다.

NH농협금융은 세계 2위 보험시장이자 최대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진출에 생존보 공동 진출을 추진한다. 농협손보와 농협생명은 농협금융의 중국내 전략적 파트너인 공소그룹(中國供銷集團有限公司)의 보험사 설립에 외국 주주로 각각 참여할 계획이다.

공소그룹은 늦어도 내년까지 자본금 15억위안 규모의 손해보험사를 신설할 예정이다. 농협손보는 중국 보험법규상



김용환 NH농협금융지주 회장. /손진영 기자

허용기준인 20% 이내에서 주주로 참여한다는 방침이다.

또 공소그룹은 손해보험업 진출 후 생명보험업에도 진출한다. 이에 농협생명은 단계적으로 중국내 사무소 설치, 중기적으로는 공소그룹 생보사 주주참여 등의 방법으로 중국시장 진출방향을 고려 중에 있다.

베트남 시장에서는 농협손보가 베트남 대형 국유은행 산하 손해보험사와 조인트벤처(JV) 방안을 논의 중이다.

지난 1월 23일 김용환 회장과 베트남 최대은행인 아그리뱅크(Agri Bank) 회장과 면담시 보험부문 제휴에 양 회장의 뜻이 모아졌다. 이에 따라 아그리뱅크 산하 손해보험사와 JV를 포함한 다각적 사업협력방안을 강구 중에 있다.

제2의 베트남이라 불리는 미얀마에는 국내 보험회사 최초의 진출로 시장선점에 나선다. 지난 1월 26일 미얀마 HTOO 그룹과 체결한 양해각서(MOU)의 후속 조치를 위해 4월초에 HTOO그룹 회장단이 방한할 예정이다. 이 기간 동안 양 그룹은 보험부문을 포함한 다각적이고 구체적인 실행계획(Action plan)을 논의할 계획이다.

김용환 NH농협금융 회장은 “중국 및 동남아의 농협금융 사업파트너는 농협보험이 가진 농업보험 관련 경험과 선진 노하우를 전수받을 수 있고, 농협보험은 현지 파트너가 가진 대규모 캡티브 시장과 폭 넓은 채널을 통해 성공적인 해외사업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RICORDO COLLECTION - SKELETON AUTOMATIC MOVEMENT - SCREW CASE BACK AND CROWN

POWERED BY HERITAGE

www.timedaily.co.kr
 Almanac 070-7840-1715



MASERATI

KT&G 백복인 사장 연임주총 앞두고 논란

KT&G생명-영진 합병, 독성검출 ‘쉬쉬’ 200억 과다계상

신약후보물질 ‘KL1333’ 논란 지속
“독성 검출엔 개발중단·평가가치 ‘0’”
R&S바이오, 영진에 손해배상 요구



백복인 KT&G 사장.

KT&G생명과학과 영진약품이 합병을 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백복인 KT&G 사장이 연임을 위해 자회사 간의 무리한 합병을 강행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오는 16일 KT&G의 주주총회가 예정된 가운데 백 사장의 연임 안건을 놓고 주요 기관투자자 사이에 평가는 크게 엇갈린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아토피 치료제인 유도마의 품목허가가 취소되면서 판권을 사들였던 R&S바이오가 영진약품에 손해배상을 요구 중이다.

당초 이 계약은 KT&G생명과학이 체결했지만 영진약품에 흡수합병되면서 영

진약품이 손해의무를 지게 됐다.

한 관계자는 “KT&G생명과학은 영진약품과의 합병을 계약한 이후 판권계약을 맺었지만 영진약품의 허가는 없었다”며 “회사가치에 영향을 미칠 중대계약으로 합병철회 사유에 해당하지만 어떤 조치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당시 KT&G생명과학의 처리가 시급했던 KT&G 입장에서 이런 지적들을 무시하고 합병을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

KT&G생명과학은 전환우선주 투자자들과 체결한 주주간 계약에 따라 2015년 말까지 기업공개(IPO)를 해야 했지만 무산됐고, 투자자들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면 적자에 자본잠식 상태인 KT&G생명과학을 대신해 KT&G가 부담을 져야 했다.

실제 KT&G생명과학은 합병을 발표하면서 “투자자들과의 계약에 따라 IPO를 해야 했지만 경영성과와 이익규모에서 상장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바이오벤처나 중소형제약사 등과의 합병을 고려했지만 계열회사와의 합병이 가장 유리하다고 판단해 영진약품과 합병을 진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KT&G생명과학의 합병가치 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신약후보물질인 ‘KL1333’ 역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KL1333’는 미토콘드리아 이상 질환 치료제로 전비임상독성시험 중 독성이 검출됐지만 이를 무시하고 재시험한 결과로 200억원이 넘는 가치평가를 내렸다.

제약업계에서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일반적으로 독성이 검출되는 경우 개발은 중단되며 평가가치는 ‘제로(0)’가 되어야 한다. 과거에는 다른 임상 기관에 재의뢰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조작성위로 보고 있다.

한 바이오업체 관계자는 “신약후보물질 독성실험에서 독성이 나오면 그걸로 끝”이라며 “원하는 결과를 유도하기 위해 임상 기관을 바꿔가면서 해서는 안되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KT&G 백 사장의 연임을 앞두고 인도네시아 자회사 관련 분식회계 감리에 자회사 합병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결과는

쉽게 예측하기 힘들게 됐다.

연임 안건이 통과되려면 출석 주주의 2분의 1이 찬성해야 하고,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현재 KT&G는 국민연금이 지분율 9.09%로 1대 주주, IBK기업은행이 6.93%로 2대 주주다. 여기에 외국인 지분율이 53.1%에 달한다.

2대 주주인 기업은행은 적극 반대 의사를 표했다.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외국인 표심은 지난주 금요일까지 의결권 위임이 3%도 안될 정도로 의사결정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제 의결권 자문기관마저 ISS는 찬성인 반면 글래스루이스는 반대를 표했다.

국내 의결권 자문사들 간에도 좋은 기업지배구조연구소는 찬성을, 서스틴베스트와 대신지배구조연구소는 백 사장 연임에 반대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수도권 신도시·택지 5만가구 공급

택지지구 추가지정 없어… 희소성 ↑

올봄 분양시장에서 수요자들이 관심을 끄는 아파트는 어떤 곳이 있을까.

부동산 전문가들은 수도권 신도시와 택지지구의 아파트 물량을 우선 공략하라고 조언한다.



완료돼 신도시 희소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주요 단지로는 시흥 장현지구 B-4블록, B-5블록에서 제일건설(주)은 ‘시흥 장현지구 제일풍경채 에듀&센트’ 75·84㎡ 1187가구를 이달 말 공급할 예정이다.

화성 동탄2신도시에서는 이달 한양산업개발(주)이 B10블록에서 ‘테라스 더모스트 동탄’ 84㎡, 140가구를 분양한다. 또 (주)모아종합건설은 이달 화성 송산그린시티 EAA10블록에 ‘송산신도시 모아미래도 에듀포레’ 84·99㎡ 585가구를 분양한다.

김포한강신도시에서는 (주)동일과 (주)동일스위트가 Ac-06블록과 Ac-07b블록에서 ‘김포한강신도시 동일스위트 더파크(The Park)’ 84㎡ 1732가구를 이달 분양한다.

2년 만에 분양을 재개하는 위례신도시에서는 우미건설이 ‘위례신도시 우미린 1차’ 877가구를 오는 6월, 하반기에는 GS건설이 ‘위례신도시 자이’ 559가구, 현대엔지니어링이 ‘위례신도시 힐스테이트’ 1078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규성 기자

올해 수도권 신도시 및 택지지구에선 5만여 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이는 분양이 가장 많았던 지난 2015년의 절반 수준이다. 올해는 위례와 검단신도시, 과천지식정보타운, 시흥 장현, 하남 감일지구 등의 막바지 공급이 예정돼 있다.

11일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올해 수도권 택지지구에서 5만3320가구(임대, 오피스텔 제외)가 분양된다. 지역별로는 검단신도시가 1만2521가구로 가장 많다. 이어 위례신도시 5493가구, 양주 옥정지구 4131가구, 하남 감일지구 3163가구 등이다.

수도권 택지지구 내 아파트 분양은 택지개발촉진법 폐지 직후인 2015년 10만 5585가구 분양으로 정점을 찍었다. 이어 2016년 6만6093가구, 2017년 4만5569가구 등으로 줄었다. 그동안 경기도 광교, 파주 운정, 미시강변 등 주요 신도시와 택지지구 내 아파트 분양이 마무리됐다.

이제는 택지지구 추가 지정이 없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동탄2신도시, 김포한강신도시 등도 올해 거의 분양

도시재생사업 수혜株… “올해 고성장 전망”

株라쿨라의 종목

희림

수익성 높은 해외매출비중 확대에
50조 규모 도시재생사업 수혜 예상

“중국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세계 각국이 인프라 구축에 나서고 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신규로 건설 예정인 공항만 178개에 달하는 만큼 관련 종목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독립리서치 ‘리서치알음’ 최성환 수석연구원은 11일 “고부가가치 특수설계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희림’이 국제 입찰경쟁에서 두각을 나타낼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희림은 건축설계와 건설사업관리(CM)를 병행하는 국내 유일의 상장 업체다. 현재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강릉 아이스타레나 등 공공시설 뿐 아니라 대학병원, 호텔, 아파트 등 다양한 부문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최 연구원이 주목한 점은 수익성이 높은 해외 매출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최 연구원은 “지난해 베트남 룡탄 국제공항 여객터미널 국제현상 설계공모에서 최종 당선돼 올 상반기 300억원 가량의 설계 수주가 예상된다”며

(희림 재무재표 분석)

(단위:%, 배)

재무비율	2015A	2016A	2017F	2018F	2019F
성장성					
- 매출액 증가율	0.1	2.9	14.1	12.5	15.2
- 영업이익 증가율	흑전	-22.4	60.4	20.2	24.4
- 순이익 증가율	흑전	-41.1	83.2	63.0	35.3
수익성					
- ROIC	6.8	4.1	11.7	13.8	16.1
- ROA	2.6	1.5	2.8	4.7	6.3
- ROE	8.0	4.4	7.8	11.8	14.3
안정성					
- 유동비율	143.1	126.6	148.9	157.9	172.6
- 부채비율	197.9	193.5	160.6	139.5	117.8
- 이자보상배율	2.5	2.0	3.0	4.5	6.4

※/자료=리서치알음

“연내 100억원 규모의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공항 설계 수주 역시 유력하다”고 분석했다.

이에 지난해 8%에 불과하던 해외매출 비중이 올해 15%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유가 상승으로 중동지역의 공공발주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란 분석이다.

국내 사업분야 역시 우호적인 환경이 마련됐다. 특히 올해부터 총 예산 50조 원 규모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전국 500여 곳의 노후주거지역을 개발하는 문재인 정부의 경기 부양책으로, 공공임대주택 같은 공공건축물 건

설에 향후 5년 동안 매년 10조원 규모가 투자될 예정이다.

최 연구원은 “희림은 업계 최고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노후청사 복합 개발사업, 스마트시티 마스터플랜 용역 등 관련 수주를 잇따라 따내고 있다”며 “사업 기회가 확대되는 전기가 마련됐다”고 분석했다.

여기에도 잦은 지진과 대형 화재 발생으로 건축물 설계 기준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도 희림에는 긍정적이란 평가다.

이에 따라 리서치알음은 희림에 대해 긍정적인 투자 의견과 함께 적정주가 6900원을 제시했다. 현재 주가 대비 54.5% 가량 상승 여력이 있다는 판단이다. /손임지 기자 sonimji301@

LH, 주택상품 개발 위해 고객설계평가단 도입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고객 니즈를 반영한 주택상품 개발을 위해 고객설계평가단(LH-파트너스)을 도입한다.

고객설계평가단은 1년 단위 기수제로 운영된다. 아이디어 제시, 도면 검토 등을 통해 신혼희망타운 등 LH 공공분양아파트의 설계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 등 각종 홍보활동을 하게 되며, 참여도에 따라 소정의 활동비가 지급된다. 우수 평가원은 다음해 평가단 참여가 보장된다.

만 25세 이상 55세 미만의 SNS, 블로그 등 네트워크 활용이 가능하고 평소 공동주택 설계분야에 관심이 많은 자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유사활동 경력자, 건축전공자, 신혼부부, 3세대둥거, 다자녀가구 등을 우대한다.

한편 고객설계평가단은 오는 18일까지 모집한다.

김윤성 LH분양주택개발부장은 “신혼희망타운 등 정부 정책의 성공적인 추진과 대외 경쟁력 제고를 위해 고객설계평가단을 도입하게 됐다”며, “LH 공공분양주택에 고객맞춤형 주택설계가 적용되어 고객만족도가 높아지고 주부 등 경력단절자 채용으로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부수적인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연우 기자 ywj964@

국내주식형 펀드, 인덱스 펀드 자금유출로 순자산 감소

주간펀드 동향

국내주식형 펀드 수익률은 소폭 상승했지만 순자산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주가 하락에 투자하는 인덱스 펀드에서 자금 유출이 나타난 영향이다.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한 주(3월 2일~8일)간 코스피지수는 주 초 미국발 통상전쟁 우려로 하락세를 보였으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부 국가의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부과 제의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 호재로 작용해 상승

반전한 결과 전주 대비 0.24% 상승한 2433.08포인트를 기록했다. 해당기간 개인은 6156억원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견인했고, 시가총액 기준으로 유형을 분류한 결과에서는 대형주(0.77%)에서만 전주 대비 상승세가 나타났다.

해당기간 국내 주식형펀드 수익률은 0.03% 소폭 상승했다. 다만 순자산은 5130억원 감소했다. 지수 하락에 베풀리는 ‘인덱스주식코스피200’ 펀드에서 자금 유출이 가장 두드러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주식형펀드는 -0.61%를 기록했다.

지역별로 분류한 결과에서 일본(-3.48%) 및 인도(-4.21%) 펀드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이에 순자산은 700억원 감소했다.

한 주간 가장 수익률이 좋았던 국내 주식형펀드는 액티브주식섹터 유형인 ‘하나 UBSIT코리아증권투자신탁1[주식]Class C5’(2.15%)로 나타났다. 해외주식형펀드는 신흥아시아주식으로 분류되는 ‘KB중국본토A주레버리지증권투자신탁(주식-파생재간접형)C-E CLASS’가 한 주간 1.95%의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가장 좋은 성과를 올린 펀드로 나타났다. /손임지 기자

미투와 ‘더불어’ 추락하는 與, 아직은 ‘자유’로운 野

안희정 이어 민병두 추가 폭로 與, 2차 피해 방지 등 대책 마련 野 “진위 밝혀 국민에 사과해야”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성폭행 의혹에 이어 지난 10일 민병두 의원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미투(me too, 나도 당했다)’ 폭로가 이어지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현재까지 미투 폭로가 정치권에서는 민주당 인사들에 집중되고 있으며, 당 차기 유력 대선 주자로 꼽히던 안 전 지사와 현역의원으로는 첫 사례로 민 의원이 폭로됨으로써 더불어민주당이 난감해하면서 동시에 추가 폭로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11일 당 관계자는 “‘미투’ 운동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는 와중에 민주당 소속 인사들이 가해자로 줄줄이 폭로되고 있어 상당히 당황스럽기는 하다”며 “이러한 상황이 지방선거나 향후 국정 운영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 당 내부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하지만 현재의 ‘미투’ 운동은 계속되어야 한다는데 공감대



여비서 성폭행 의혹을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지난 9일 오후 마포구 서울서부지검으로 출석해 고개를 숙이고 있다. /연합뉴스



자신을 겨냥한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폭로가 나오자 1시간여 만에 즉각 의원직에서 사퇴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 사무실 문이 11일 굳게 닫혀 있다. /연합뉴스

를 이루고 있고, 2차 피해 방지 등 대책 마련에 여당인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설명했다.

반면,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야당들은 민주당을 향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서는 분위기가 관측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미투 운동 확산으로 민주당은 추문당으로까지 변명의 여지 없이 되었으니 탄핵후 지난 1년 동안 그들이 한 것이라곤 정치보복, 국정파탄, 성추문 이외에 세상을 변하게 한 것이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장제원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대한민국 집권세력 전체가 성농단으로 국민적 심판대에 오르게 되었다”며 “국민들은 문재인 정권과 추미에 대표의 민주당을 ‘추문당’으로 부른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차기 대권주자라는 현직 지사의 권력형 성폭력으로 시작해, ‘대통령의 입’이자 문재인 정권의 얼굴이라는 사람의 불륜행각 의혹, 현직의원과 군수의 성추행, 이만하면 청와대에서 국회 광역단체 기초단체에 이르는 ‘위 아래 위! 위! 아래’ 까지 ‘성추문 종합선물세트 정당’이라 할 만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외치던 민주당 정권이 집권 10개월만에 ‘성추행 교본’이나 만들어 내며 ‘이중성과 위선, 거짓말로 가득찬 대한민국’으로 추락시켰다”며 “결과 속이 그토록 다른 이중적 ‘추문당’이 무슨 엄치로 국정농단을 운운하고 적폐청산과 여성인권을 입에 담을 수 있는지 창피할 따름”이라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권성주 대변인도 전날 논평에서 “그렇게 도덕과 인권을 내세웠던 정부·여당의 잇따른 성폭력 문제를 보며 그 추잡한 이중성에 분노를 금할 수 없

다”며 “정부·여당은 정상적인 인성을 만들기 위한 당내 성교육부터 진행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권 대변인은 “민 의원은 한 건의 폭로가 있자마자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며 “국민이 당혹스러운 만큼 빠른 현직 국회의원의 사퇴는 드러난 문제가 빙산의 일각이었을 것이라는 강한 의혹을 낳는다”고 지적했다.

민주평화당 최경환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정치권에 미투 운동이 확산되면서 집권여당인 민주당 인사들이 연루된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사건의 진위를 분명히 또 명확히 밝히고 국민들께 사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안희정, 정봉주, 안병호 함평군수 등에 이어서 급기야 현역 의원까지 사퇴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며 “사실관계는 차후에 밝혀지겠지만 서울시장 출마 예정자로 거론됐던 민병두 의원 사건은 또 한 번의 충격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집권여당에 대해 신뢰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며 “모든 성범죄에는 성역이 없어야 한다. 여야 정치권은 스스로를 경계하고 자가당착에 빠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창원 기자 mediaeco@metroseoul.co.kr

정부 개헌안 내일 文 대통령에 보고... 여야 공방 불가피

與, 자유한국·바른미래와 회동 제안 ‘3+3+3 체널’ 구축 방안 제시할 듯 자유한국, 동시개헌투표 ‘절대불가’

오는 13일 정부개헌안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식 보고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개헌 논의에 전환점을 맞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지방선거시 동시 개헌 국민투표’를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개헌안 발의가 향후 여야의 협상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3월까지 국회가 개헌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정부개헌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개헌안을 보고받은 후



지난 7일 낮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오찬 회동에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인사말 도중 ‘개헌’과 관련한 발언을 하자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주제에 벗어난다’며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20일까지 발의하겠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여야5당 대표 회동에서도 “개헌은 국민에 대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국회에서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국회가 개헌을

적시에 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쪽에서도 그냥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는 것이 아니냐”고 밝혔다.

이같은 문 대통령의 개헌 드라이브에 여야는 예의주시하며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당장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우원식 원내대표는 13일 오전 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 등과의 회동을 제안했다.

이 자리에서 우 원내대표는 국회 차원 개헌 합의안 도출을 위한 ‘3+3+3 체널’ 구축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정부개헌안을 제시하며 개헌 논의의 불씨를 다시금 살린 만큼 이 기회를 통해 야당을 압박해 국회 협상안 마련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야당의 반발에 부딪혀 개헌 투표가 불발되더라도 개헌안 마련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임으로써 정당성을 부여받겠다는 계산도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자유한국당의 경우 지방선거시 동시 개헌 국민투표는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116개의 의석을 보유해 개헌 저지선(국회의원 1/3, 293석 기준 98석)을 넘겨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 지방선거에서의 개헌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다만 문 대통령이 정부개헌안을 발의할 경우 이를 반대하기 위해서는 10월 개헌 투표 시기 확정 등 약속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무작정 반대만 했을 경우 이번 지방선거에서나 향후 정국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기 확정 정도의 협상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민주당과 개헌 내용 중 권력구조를 두고 크게 이견을 보이고 있는 만큼 이를 관찰시키기 위해서라도 시기 확정 등을 통한 명분 확보가 중요할 것이라는게 정치권 다수의 해석이다. /이창원 기자

더불어민주 박수현 ‘내연녀 공천’에 정면 반박

“이혼시 수백억대 특혜 강요 거절 조작 기자회견으로 허위사실 유포”

더불어민주당 소속 충남도지사 예비후보인 박수현 청와대 전 대변인이 자신을 둘러싼 ‘내연녀 공천’ 의혹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박 예비후보는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청와대 대변인 재직 시절 부인과 이혼 협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수백억대의 특혜를 주도해 강요받았지만 거절했다”며 “이후 충남지사 예비선거에 등록하자 특혜를 요구했던 장본인들이 기획 조작된 기자회견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저의 개인신상과 관련

해 악성적 내용들로 충남도민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여러분께 진심 송구하다”며 “이 같은 정치공작은 후보에 대한 저열한 네거티브일 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선명성을 훼손하는 명백한 해당행위로 중앙당 차원의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대변인 재직 시 민주당 당원인 오영환씨, 전 부인 박모씨, 전 처형 등으로부터 부정청탁이 있었으며, 이를 거절하자 보복성 정치공작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 박 예비후보의 설명이다.

박 예비후보에 따르면 이들은 ▲전기차·가스차 충전소를 위한 서울 강남구 삼성동 서울시 토지 1500평 20년간 무상임대 및 사업 인허가 ▲성남구 분당 주유소 매입자금 150억원·서울 강남구 대치동

주유소 매입자금 500억원 연 4% 이자 대출 은행 앞선 등 사업권을 구체적으로 요구했다.

박 예비후보는 “이들은 ‘청와대 대변인 말 한마디면 해결되는 것이 아니냐’는 취지로 제 전 보좌관을 압박했지만, 요구를 들어줄 힘도 없었다”며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이들은 제가 불륜을 벌여 아내가 집을 나갔다는 허위사실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벌였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불륜 상대로 지목된 김모씨와의 불륜설에 대해서도 김모씨의 전 남편의 진술서와 박 예비후보의 전 처가 제출한 소송 서류 등을 제시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박 예비후보의 전 처의 이혼소송 서류에는 이혼이 ‘여자문제’가 아닌 ‘생활고’ 때문인 것으로 적시돼 있었다. /이창원 기자

강남 아파트 가격 ‘거품’ 강북 ‘거품 과정’

보험연구원, 2년전부터 지방과 격차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 가격이 거품이 끼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강북지역의 경우 가격 거품이 형성되는 과정에 놓였다고 분석했다. 보험연구원 윤성훈 선임연구위원과 한성원 연구원이 11일 발표한 ‘서울 아파트매매가격의 거품 가능성’에 따르면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로 침체를 보였던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2014년부터 상승세로 전환했다. 지난 2016년부터는 지방과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KB 부동산 시세 기준 서울 전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지난 2013년 -1.9%에서 2014년 1.0%, 2015년 5.6%, 2016년 4.2%, 2017년 5.3% 상승했다. 이 기간 소비재물가지수 상승률은 연평균 1% 내외

에 그쳤다. 강남구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지난 2013년 -1.2%에서 2014년 2.3%, 2015년 6.9%, 2016년 5.3%, 2017년 6.6% 상승하는 등 상승세가 서울 다른 지역보다 높은 모습을 보였다.

반면 부산·대구·광주·인천·대전·울산 등 6대 광역시의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지난 2013년 1.5%, 2014년 3.3%, 2015년 6.6%, 2016년 1.1%, 2017년 0.9% 상승했다. 2016년부터 서울과 상승률 격차를 보였다.

윤성훈 선임연구위원은 “정부는 지난해 8월 2일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부동산 대책(8·2 대책)을 발표했다”며 “다만 이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세가 더욱 높아짐에 따라 과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봉준 기자 bj35sea@

삼성전자계열 오늘부터 접수... 주요그룹 상반기 공채 스타트

삼성전자 직무역량 중심 평가

현대차 역사에세이 작성 폐지

LG 자격증 등 스펙 입력란 삭제

삼성, 현대차, LG 등 국내 주요 그룹이 이번 주부터 올 상반기 신입사원 공채에 본격 돌입한다.

올해 대기업들은 구직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채용절차는 간소화하면서도 직무 역량 검증에 초점을 맞추고 채용하려는 모습이다. 이를 위해 일부 기업은 서류 검사 등에 인공지능(AI)을 도입했다.

그룹마다 구체적인 채용 인원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에 부합하기 위해 최소한 예년 수준의 채용을 이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11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은 12일부터 전자 계열사 원서 접수를 시작한다. 14일부터는 비전자 계열사 등에서도 원서 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올해 8월 졸업 예정자나 이미 졸업한 사람들이다.

삼성전자는 올해 역시 지난해와 비슷



삼성, 현대차, LG 등 국내 주요 그룹이 이번 주부터 올 상반기 신입사원 공채에 본격 돌입한다. 사진은 삼성 대졸 신입사원 공채 직무적성검사 GSAT를 보기 위해 입실 중인 취업준비생들 /삼성그룹

한 총 1만명 가량을 상·하반기에 채용할 방침이다.

필기시험인 'GSAT'는 다음달 15일 시행된다. GSAT 과목은 올해부터 상식이 폐지되고 언어, 수리, 추리, 시각적 사고 등을 실시된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직무 역량 중심의

채용문화가 확산에 따라 광범위한 지식을 요구하는 상식을 제외하고 직무 관련 지식을 집중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바뀐다"고 설명했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2일부터 상반기 신입 공채를 시작했다. 모집 부문은 연구개발(R&D), 구매·부품개발·플랜트 등, 전

락지원, 소프트웨어 등이다. 다음달 8일 인적성검사, HMAT을 시행하는 한편 수시로 상시채용을 진행한다.

현대차는 지원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했던 역사에세이 작성을 6년만에 폐지했다. 지원자들이 역사에세이 시험을 위한 별도의 공부를 하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한다는 지적에 이번 채용과정에서 제외했다.

SK그룹은 오는 23일까지 SK이노베이션, SK텔레콤, SK하이닉스 등 10개 계열사가 서류 접수를 실시한다. 필기시험인 'SKCT'는 내달 22일 서류합격자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SK그룹은 2015년부터 입사지원서에 학력, 전공, 학점만 기재하게 하고 해외연수 여부, 사진 등은 제외하는 등 스펙 파괴에 앞장서고 있다.

올해 1만명 신규채용을 발표한 LG그룹은 LG전자가 23일까지, LG화학·LG디스플레이 등은 16일까지 서류를 접수한다. 지원자별로 최대 3곳의 계열사에 지원할 수 있다.

LG그룹은 정부의 블라인드 채용 기조

에 맞춰 입사지원서에서 어학성적, 자격증 등 스펙 입력란을 없앴지만 내달 7일에 실시하는 필기시험에서 인적성검사와 함께 알고리즘 역량을 평가하는 ITQ테스트를 함께 치른다.

롯데그룹은 20일~29일 그룹 공채를 진행한다. 내달 말 필기시험, 5월 중순 면접 순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롯데는 이번 채용 자기소개서 평가에 AI를 처음 도입했다. AI는 인재상에 맞는 부합도 및 직무적합도, 표절 여부 등 영역을 분석해 적합 인재 여부에 대한 기본자료를 제공한다.

CJ그룹은 오는 19일 오후 6시까지 CJ그룹 채용 홈페이지 및 모바일 홈페이지를 통해 서류를 접수받는다. 올해 상반기 공채를 통해 1000여 명의 대졸 신입사원을 채용할 계획이다.

대기업 한 인사담당 관계자는 "스펙을 보지 않는 블라인드 채용에 구직자가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면접과 자기소개서 등에 나타낼 수 있는 자신만의 장점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정은미 기자 21cindiun@metroseoul.co.kr

롯데 부회장단, '辛苦的 공백' 메우기 총력

베트남 방문·현지투자 확대 논의
LC UK 등 유럽현지 사업장 방문

신동빈 회장 구속 이후 비상경영체제를 선언한 롯데그룹이 황각규 롯데지주 부회장을 중심으로 '총수 공백'을 메우기에 총력을 가하고 있다.

지나해 조직된 4개 사업부문(유통·화학·식품·호텔·서비스)을 이끄는 부회장단도 각 사업부문에서 등분서주하고 있다.

11일 롯데에 따르면 황 부회장은 지난 8일 베트남을 방문해 응웬 수안 폭 베트남 총리와 면담하고 현지 투자 확대 및 협력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롯데는 1990년대 식품·외식사업 부문을 시작으로 유통·서비스·건설 등 그룹의 핵심사업이 잇달아 베트남에 진출하

며 활발하게 사업을 펼치고 있다. 베트남에는 롯데제과,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롯데지알에스, 롯데시네마, 롯데자산개발, 롯데호텔, 롯데면세점 등 16개 계열사가 진출해 있으며 1만1000여 임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황 부회장은 이날 면담에서 "롯데가 베트남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하고 "롯데는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부문의 투자와 고용 창출, 사회공헌활동 등을 통해 베트남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기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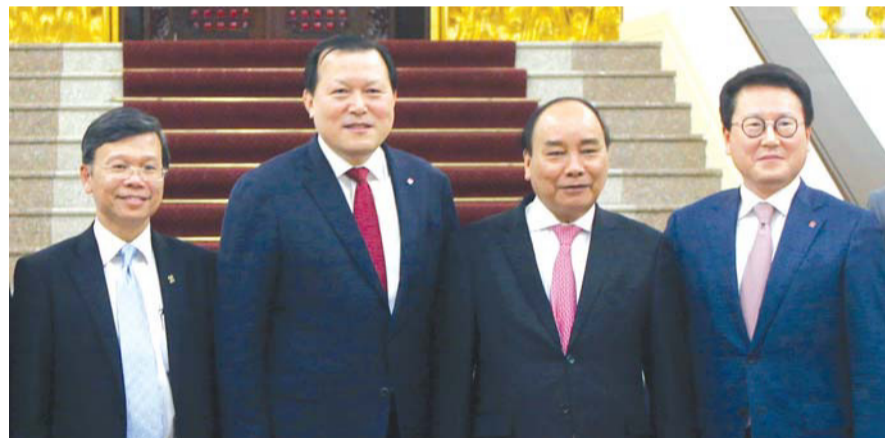
평소 가으면 신 회장이 직접 방문했었지만 총수가 부재한 상황에서 황 부회장이 사업의 중요도를 고려해 직접 회장 대행 역할을 했다.

황 부회장은 한일 롯데 간 연결고리 역

할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쓰쿠다 다카유키(佃孝之) 사장 등 일본롯데홀딩스 핵심 경영진과도 수시로 소통하며 재점화 조짐을 보이는 총수 형제간 경영권 분쟁에도 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화학 부문을 총괄하는 허수영 화학BU 부회장이 황 부회장을 도와 조직 안정화에 집중하고 있다. 황 부회장은 이달 중 롯데케미칼과 롯데첨단소재 중국 자회사와 여수, 울산의 국내 사업장을 방문할 계획이다. 오는 5월에는 동남아 출장길에 올라 말레이시아 롯데케미칼 타이탄 사업장을 점검할 예정이다. 말레이시아 방문 기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리는 아시아석유화학회의(APIC)에 참석한다.

허 부회장은 오는 6월에는 롯데첨단소재, 롯데정밀화학, LC UK 등 유럽 현지 사업장을 차례로 방문할 예정이다.



지난 8일 롯데 황각규 부회장(왼쪽 두번째)은 베트남 하노이에서 응웬수안폭 베트남 총리(왼쪽 세번째)를 만나 현지 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롯데지주

식품 부문을 총괄하는 이재혁 부회장은 국내의 사업장 정기교류 강화를 통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특히 식품 부문이 강한 일본 롯데와의 교류를 확대해 시너지 효과를 낸다는 방침이다.

지나해에도 10여 차례 이상 진행한 한일 롯데 식품 계열사간 교류회는 이달 말까지 마케팅, 영업, 생산, 연구, 글로벌 등

분야에서 5차례 이상 진행될 예정이다.

송용덕 부회장이 총괄하는 호텔&서비스BU도 최근 롯데호텔, 롯데JTB, 롯데면세점, 롯데홈쇼핑 등 주요 관광·유통 계열사 간 협업을 통해 지나해 12월 오픈한 일본 롯데 아라이리조트 패키지 상품을 개발하는 등 일본과의 시너지를 강화하는 추세다. /박인용 기자 parku7854@

20대 경제활동인구, 60대 이상에 '추월'당해

인구 고령화와 청년실업 악화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20대 경제활동인구가 처음으로 60세 이상 경제활동인구 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나해 20대 경제활동 인구는 406만3000명으로 2016년과 같은 수준에 머물렀지만 60세 이상 경제활동 인구는 전년보다 25만7000명 늘어난 421만 명을 기록해 20대 경제활동인구를 넘어섰다.

통계청은 지나해 노인인구와 20대 인구 모두 증가했지만 고용 한파로 구직을 미룬 취업준비생 등 청년 비경제활동 인구가 대거 늘면서 경제활동을 하는 20대 인구가 제자리걸음을 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경제활동 인구는 15세 이상 인구 중에서 조사대상 기간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을 한 취업자와 일을 하지 않지만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한 실업자를 합친 것이다.

몸이 아프거나 육아·취업 준비 등들이

유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은 비경제활동 인구로 분류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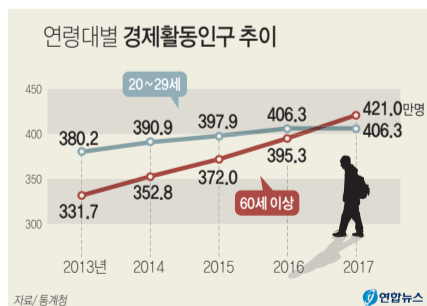
무엇보다 지나해 20대 경제활동 인구가 60세 이상 경제활동 인구에 추월당한 데에는 최근 가속화한 고령화의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지나해 60세 이상 노인은 2016년보다 49만5000명이나 늘어나면서 전체 인구와 경제활동 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각각 1000만 명, 400만 명을 넘어섰다.

반면 20대 경제활동 인구는 전년과 같은 수준에 머물러 서면서 노인 경제활동 인구의 청년 경제활동 인구 추월 시기를 앞당겼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한편, 경제활동에 소극적인 청년들의 모습은 인구 대비 경제 활동 인구의 증감 추이를 통해 확연히 드러난다.

지나해 20대 인구 또한 636만 명으로 전년보다 6만4000명 늘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0년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다.



실제로 지나해 청년층의 대표적인 비경제활동 유형인 취업준비생은 전년보다 4100명 늘어난 66만9000명을 기록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증가 폭도 2008년 금융위기 당시의 4000명을 뛰어넘으며 최대를 기록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청년 경제활동 인구가 인구 증가 대비 늘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비경제활동 인구가 많이 늘었다는 것"이라며 "지나해 악화한 청년 고용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세종=최승훈기자 grandtrust@

韓, 4차산업혁명 핵심인력 OECD '꼴찌'

소프트웨어 전문가 등 우리나라의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짚어줄 핵심인력들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는 등 인력난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되면서 줄어들 수밖에 없는 육체노동자 등의 비중은 OECD보다 높았다.

너나 할 것 없이 4차 산업혁명을 외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인력'이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것이다.

이에 따라 에스토니아처럼 초등학교 때부터 소프트웨어를 단독 교과로 편성해 관련 인재를 조기에 키우고 정보통신 분야 관리자도 더 많이 육성하는 등의 노력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11일 파이퍼치연구소가 펴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핵심인력 현황 및 개선방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력으로 꼽을 수 있는 비반복적 인지도노동자, 즉 핵심인력 가운데

전문가 비중은 2016년 현재 우리나라가 21.6%로 OECD 회원국 29곳 평균(42.2%)의 절반에 그쳤다. 이는 가장 낮은 터키(21%)와도 비슷한 수준이다.

반면 룩셈부르크는 59.4%로 전문가 비중이 가장 높았고 스위스(52.6%), 노르웨이(52.6%), 스웨덴(52.1) 등 유럽국가가 주로 상위에 올랐다.

비반복적 인지도노동이란 응용소프트웨어 개발자나 기업 최고경영자(OEO) 등을 말한다.

핵심인력 중 관리자 비중은 에스토니아가 12.1%로 전체 중에서 1위를 기록했다. 호주도 11.4%로 높았다. OECD 평균은 6.5%다. 반면 한국은 1.3%로 29개국 중 꼴찌였다.

이런 가운데 음식점 종업원 등이 속하는 비반복적 육체 노동과 부품조립원 등이 포함되는 반복적 육체 노동 비중은 한국이 각각 22.5%, 25.1%로 OECD 평균인 17.6%, 16.5%를 크게 웃돌았다. /김승호 기자 bada@



좋은 콜레스테롤 올려주고

활성형 모나콜린K!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나쁜 콜레스테롤 내려주는

모나콜린K의 힘

홍국쌀 발효과정에서 분비되는 신비의 붉은 빛 물질 모나콜린K가 혈관에 쌓인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콜레스테롤을 청소하고 혈관 청소를 돕는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콜레스테롤을 유지시킵니다.

기능 및 성분 함량 (1일 1캡슐 기준)

모나콜린K 6mg

마그네슘 91mg (부원료)

마늘동결건조분말 100mg (부원료)



www.vitamin-house.com / 1588-8529 비타민하우스 가맹약국 건강기능식품 코너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환율 10원 하락땐 車 매출 4200억·영업이익률 4%p 감소”

(원·달러)

비온드 스톱

④ 환율전쟁과 한국경제

#. 경기도에 동지를 든 자동차 부품업체 B사는 요즘 미국 관련 뉴스에 자꾸 눈이 간다. 환율 걱정 때문이다. 이 회사의 영업담당 부사장은 “떨어지는 달러값을 보면 피가 마른다. 문제는 환율이 하루에도 최대 두자릿수까지 널 뿔다 보니 어느 장단에 춤을 추야 할 지 모르겠다”며 걱정했다.

트럼프가 ‘이웃 나라 거지 만들기(Beggar-My-Neighbour) 정책’을 꺼내 들까. 시장에서는 무역전쟁의 한 카드가 될 것으로 해석한다. 무역전쟁과 통화전쟁은 때려야 뗄 수 없어서다.

지난 1월 스위스 세계경제포럼(다보스포럼),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약한 달러는 우리에게 무역과 기회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좋다. 장기적으로 달러의 힘은 미국 경제의 힘을 반영하고, 달러는 주요 준비통화 역할을 계속할 것”이라며 통화 전쟁의 포문을 열었다. 달러를 앞세워 무역수지를 개선하고, 궁극적으로 고용을 창출하겠다는 의도다.

전문가들은 “유로존과 일본 중앙은행은 이미 긴축 선회에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며 포스트 통화 전쟁을 우려한다.

◆통화전쟁 이미 시작·韓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도

시계를 1987년으로 돌려보자. 상상만 해도 끔찍한 환율 대란이 터졌던 시기다. 당시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자 원화는 급격하게 절상돼 1987년 원·달러 환율은 연 평균 792.30원에서 2년후 679.60원으로 14% 하락(원화값 상승)한다. 저가에 의존하던

지속적인 원화강세에 대비해 장기적인 환리스크 전략 필요 기업 재무리스크 초래될 수도

수출경쟁력은 큰 타격을 입게 돼 1988년 141억달러였던 경상수지 흑자는 1989년 3분의1 수준인 50억달러로 줄었다. 이 기간 대미무역도 약 30% 감소했다.

올해 수출기업의 가장 민감한 문제도 환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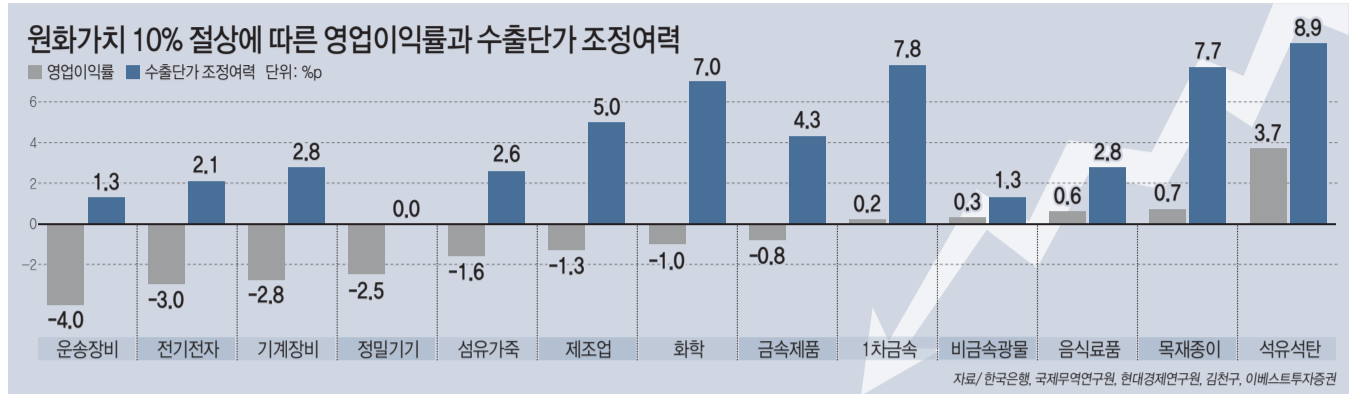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연간 수출실적 50만달러 이상인 기업 514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수출기업의 경영 환경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이슈로 ‘환율 변동 심화’(48.4%)를 첫 손가락에 꼽았다. ‘글로벌 경쟁 심화’(25.1%), ‘미국·중국 등의 보호무역주의 강화’(16.0%) 등이 뒤를 이었다.

수출기업들은 보통 환율이 10% 하락하면 운송장비업의 영업이익률은 4%포인트, 전기전자산업은 3%포인트, 기계장비는 2.8%포인트 감소한다고 분석한다.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 자동차, 선박, 디스플레이, 스마트폰 등이 대부분 타격을 입는다는 의미다. 현대자동차그룹 산하 한국자동차산업연구소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이 10원 하락할 경우 자동차업계 매출이 연간 4200억원 감소한다.

김건우 무역협회 동향분석실 연구원은 “원화 강세가 지속될 것에 대비해 장기적인 환리스크 관리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며 “동시에 기업들은 자체 환율 전문가를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응답 기업의 67.9%는 이미 환차손을 경험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기우일까. 지나치다는 지적이 있다. 과



거와 달리 한국경제의 체질이 좋아졌고, 산업 경쟁력도 강화됐다는데 근거한다.

하지만 미국이 올해 우리나라에 대해 ‘환율조작국’ 지정 카드를 꺼낼 가능성은 열려 있다. 미국 정부는 ①대미 무역흑자가 200억달러 이상 ②경상수지 흑자가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 ③중앙은행 외환순매입액 2% 이상 등을 동시에 충족하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다.

한국은 작년 10월 ①·②번에 해당해 환율조작국보다 한 단계 낮은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됐다. 2017년 대미 무역흑자가 179억7000만달러를 기록하며 첫번째 요건에서는 벗어났다. 하지만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국가로 의심받게 된다면 상황은 겉잡기 힘들다. 미국 재무부는 매년 4월과 10월 환율보고서를 내놓는다.

◆금리인상은 또다른 환율 압박카드

미국은 금리인상에도 자신감을 갖는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신임 의장은 지난달 27일 취임 후 첫 번째 청문회에 출석해 “최근 경제지표를 보면 물가상승률이 Fed의 목표 수준인 2%까지 상승하고 있다”며 “기준금리의 점진적인 인상이 목표 달성에 최선이라는 자신감을 준다”고 말했다.

금리를 올리면 달러가 강세를 보인다. 하지만 최근 흐름은 탈동조화 양상을 보인다. 미국의 경기 회복에 따른 위험자산 선호 심리의 유지, 미국 재정확장에 따른 적자 심화 가능성 등과 함께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주의 노선 등에 영향을 더 받고 있는 것.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초부터 미국산 제품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약 달러 옹호 발언을 해 왔다.

시장에서는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부채 디플레이션을 걱정한다.

미국의 경제학자 피셔(계량경제학의 창시자)는 1933년 ‘부채 디플레이션(Debt Deflation)’ 개념을 통해 장기 경기 사일에서 부채와 물가를 가장 경계해야 할 변수로 꼽았다. ‘호황 국면이 끝난 후 부채 조정 과정에서 나타난 자산 가격 하락과 유동성 위축 등이 실물경제 침체와 물가 하락으로 퍼진다’는 것.

이런 디플레이션에서 실질 채무는 불어나고, 채무자는 소비와 저축을 줄일 수밖에 없다. 이는 다시 실물경제 침체와 물가 하락이라는 악순환 고리를 만든다’는 게 부채 디플레이션의 요지다.

전문가들은 금리가 오르면 가계나 기업 모두 빚을 내고 싶어도 늘리기 어려운 처지

에 내몰릴 수 있고, 이는 한국경제에 충격을 몰고 올 수 있다고 경고한다. 원화값 강세로 누릴 빛 부담 감소가 새로운 부채 리스크를 따라가지 못할 것이란 지적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의 ‘글로벌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가계와 정부, 비금융기업의 부채 비율은 2006년 183%에서 2016년 232%로 49%포인트 상승했다. 같은 기간 주요 20개국(G20)의 부채 비율 평균은 210%에서 235%까지 25%포인트 상승했다.

기업들이 걱정하는 것은 ‘금리 상승→자금조달 위축(부채절벽)→투자감소→경쟁력 약화→재무리스크(부채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미국이 추가 금리 인상을 예고한 터라 기업의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유럽연합과 일본도 긴축 선회에 신중한 입장이다.

금리인상은 수출에도 부담이 된다. 원화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어서다.

한국무역협회는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이 기업 채무 상황부담을 증가시키고, 원화 절상을 가속할 수 있다”며 “자칫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문호 기자 kmh@metroseoul.co.kr

韓·美 세이프가드 양자협의 사실상 결렬... WTO 제소 수순

미국, 세이프가드 보상·철회 거부 정부 “제소 요건 충족... 보복 추진”

미국이 우리 정부의 세탁기·태양광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철회와 피해 보상 요청을 끝내 수용하지 않자 정부의 미국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미국의 통상 압력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역량을 더욱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 또한 높아지고 있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월 23일 서명한 세이프가드 포고문(proclamation)이 지난 4일로 40일이 지났지만 미국은 세이프가드 내용을 수정하겠다는 발표를 하지 않았다.

미국의 세이프가드 포고문은 대통령의 발표 30일 이내에 WTO 회원국과 협의를



지난 1월 23일 서울 무역보협공사에서 열린 미국의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와 관련 민관대책회의에서 김현중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모두발언을 통해 “부당한 조치에 대해 WTO(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통해 세이프가드를 축소·수정 및 종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그 내용을 40일 이내에 발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때문에 미국의 발표가 없다는 것은 미국이 우리 정부의 세이프가드 완화 및 철회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24일 미 무역대표부(USTR)에 양자협의를 요청, 세이프가드가 WTO 관련 협정에 합치하지 않는 과도한 조치라는 점을 지적하고 조치의

완화 및 철회를 요청했다.

또 WTO 세이프가드 협정 8.1조를 근거로 세이프가드로 인해 국내 업계에 예상되는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요청했다.

세이프가드 협정은 세이프가드 발동국이 세이프가드로 피해를 보는 수출국에 다른 품목 관세 인하 등 적절한 방식으로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출국은 30일 이내에 보상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세이프가드 피해 금액만큼 발동국에 관세양허 정치(축소하거나 없앤 관세를 다시 부과) 등 보복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보복 조치는 피해국이 WTO 제소에서 승수하지 않는 한 3년 동안 할 수 없다.

정부는 양자협에서 소득이 없으면 양허 정치와 WTO 분쟁해결절차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여러 번 밝혀왔다.

산업부 관계자는 “양자협은 사실상 끝났다”면서 “미국을 WTO에 제소할 요

건은 충족됐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최근 철강 관세 등 미국의 신 보호무역주의에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계속 커지자 정부가 대미 통상 역량을 더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통상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관료 조직의 경우 문호가 개방된 미국과 달리 고시 출신 중심으로 돌아가고, 인사 제도가 경직돼 민간 영역의 다양한 인재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이와 함께 기업도 정부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통상 전문 인력을 키우고 통상문제를 최소화하는 형태로 투자나 수급 전략을 설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한 통상 전문가는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 중 하나인 미국과 우리나라의 통상 역량이 다를 수밖에 없지만, 그만큼 힘의 차이를 극복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며 “특히 통상문제가 불거지고 나서야 통상 조직을 보강하는 기존 모습에서 탈피해 정부와 기업이 평소에 미국 관련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미리 대비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

산업은행, 이번주 한국GM 실사 착수... 부실 원인 규명되나

산업은행이 이번주부터 한국GM에 대한 실사를 시작함에 따라 한국GM의 부실 원인이 규명될 지 관심이 쏠린다.

11일 산업은행에 따르면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과 배리 앵글 GM 해외사업부 문 사장은 지난 9일 만나 한국GM의 실사

를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산업은행은 이번 실사에서 한국GM의 원가구조를 꼼꼼하게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한국GM의 회생 가능성이 원가구조에 달려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산업은행은 구체적으로 이전가격, 본

사 대출의 고금리, 본사 관리비, 기술사용료, 인건비 등 5대 원가 요인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산업은행은 이번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GM 본사의 자구계획안이 실현 가능한지를 판단해 지원 여부를 결정할 계획

이다. 지원은 신규자금 투입이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GM은 이달 초 산업은행에 보낸 이메일에서 한국GM에 빌려준 27억달러(약 2조9000억원)를 출자전환하겠다고면서 대신 신차 출시나 생산에 필요한 28억달러(약 3조원) 규모의 신규 투자에 참여할 것을 요구했다.

산업은행도 한국GM이 자구계획에 따

라 회생 가능성이 보이면 지분율 17% 만큼(약 5000억원) 신규 투자에 참여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서로간 입장 차이를 좁혀가면서 실사를 하기로 했다”며 “이견이 있는 부분은 계속 협의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최저임금 빌미... 술값 암체인상 '소주 1병 6000원'

서울지역 소주 최대 1000원 올라
외식물가 19개월만에 최대 상승
편의점 마른안주류도 최대 20% ↑

최저임금 인상을 빌미로 서민과 직장인들이 즐겨 마시는 소주와 맥주 가격이 오르고 있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은 평년대비 증가율이 높은 16.4%이다. 당연히 소상공인들에게 인건비 상승 등으로 요인으로 인해 부담이 가중된다. 하지만 직원이 없는 곳에서도 너도나도 주류와 안주 가격을 인상하고 있다. 한편 주류업체의 출고가는 지난해와 똑 같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지역 식당에서 소주와 맥주 가격이 최소 500원에서 최대 1000원가량 올랐다. 마른 안주를 비롯한 안주류도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



/픽사베이

했다.

서울 강남권에 있는 식당에서 소주 한 병의 가격은 4000원에서 5000원 사이였지만 최근 5000원에서 6000원으로 인상됐다. 강북권 식당에서도 3000원에서

4000원 사이 가격이 최소 500원 최대 1000원까지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이 오른 이유는 주류업체의 출고가 인상이 아닌 식당에서 인건비 부담 때문이다.

서울시 강남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박모(34)씨는 "소주가격은 5000원에서 6000원으로 올랐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알바생들의 시급이 오르면서 어쩔 수 없는 결정이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지난해 말부터 생필품을 비롯한, 라면, 햄버거, 커피 등의 가격이 지속해서 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12월 외식물가 상승 폭은 2.7%로 1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 1월 상승 폭이 2.8%로 더 커졌다. 2월에도 2.8%의 상승 폭을 유지했다.

소주와 맥주 가격만 오르게 아니다. 안주 가격도 올랐다.

원자재값과 인건비 상승을 이유로 안주 가격을 올렸다. 지난해부터 가격이 급등한 오징어 등 마른안주가 대표적이다. 인상폭은 1000원에서 2000원 사이다.

서울시 종로구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는 김모(45)씨는 "오징어 가격이 지난해와 비교해 많이 올랐다. 가게에서 판매하는 오징어 안주 가격을 1만5000원에서 올해 초부터 1000원 올렸다.

안주 가격 상승은 '혼술·흠술족'에게도 부담으로 작용한다.

편의점 CU(씨유)는 최근 마른 안주류 24개 품목의 가격을 최대 20%가량 올렸다. 대표적으로 '짬오랑'이 3500원에서 4100원으로, '숫다리'는 1500원에서 1700원으로 각각 600원, 200원 상승했다.

숙취 해소 음료도 가격이 올랐다.

국내 1위 숙취 해소 음료인 CJ헬스케어 '컨디션'의 주요 제품이 이달부터 500원 인상했다. 핫개컨디션, 컨디션레이디의 편의점 판매 가격은 각각 4500원에서 5000원으로 올랐다.

/박인용 기자 parkiu7854@metroseoul.co.kr

MB 혐의 인정해도... 檢, 구속영장 신청할 듯

혐의 20여개... 14일 오전 조사
'불구속기소' 형평성 등에 어긋나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 등 혐의 인정 여부에 관계 없이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는 14일 오전 9시 30분 이 전 대통령을 불러 자동차 부품사 다스 비자금 조성 등 혐의에 대해 캐물을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의 혐의는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공직선거법·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횡령·배임 등의혹과 관련해 20여개에 달할 전망이다. 그는 국가정보원과 삼성 등 민간기업으로부터 총 110억원대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를 받는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구속기소) 등이 국정원에서 최소 17억5000만원의 특수활동비를



이명박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사무실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상납받는 데 관여한 '주범'으로 규정했다.

또한 검찰은 삼성전자가 2007년 11월~2009년 3월 대납한 것으로 조사된 다스 소송비 60억원을 이 전 대통령에게 제공된 뇌물로 본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소유로 의심되는



11일 서울중앙지검 모습. 이명박 전 대통령의 조사를 사흘 앞둔 이날 검찰은 불법 자금 수수 과정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을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스가 300억원대 불법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잠정 결론 내리고 소명을 요구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이에 검찰이 이 전 대통령 조사 이후 구속기소를 택할 지 여부가 관심을 끈다. 당초 이 전 대통령이 혐의를 인정할 경우 검찰이 불구속기소를 검토하지 않

겠느냐는 관측이 나왔지만, 범조계에서는 현실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관련 혐의로 구속된 측근과의 형평성에 어긋나는데다, 혐의 인정은 곧 방어진 포기를 뜻하기 때문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이 검

찰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게 될 경우, 법정에서 다툴 것도 없이 형량만 정하면 된다"며 "혐의 인정하고 불구속기소나 구속기소나 따지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자들이 구속된 상태에서 이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는 것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사건의 최정점에 있다고 지목된 이 전 대통령을 구속하지 않을 경우, 나머지 공범 모두 구속기소할 명분이 사라진다는 설명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3월 27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같은 달 31일 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법원이 구속 사유 가운데 범죄 사실 다툴 여부와 증거인멸 우려 등을 따져 이 전 대통령의 영장을 기각할 가능성도 있다.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군 댓갈 수사' 축소 지시 의혹을 받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허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범중 기자 joker@

외국인투자 200억달러·일자리 1만개 창출

산업부, 외국인투자촉진시책 의결

정부가 올해 200억 달러 이상의 외국인 투자를 유치해 일자리 1만개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20일부터 27일까지 외국인투자위원회를 열어 '2018년 외국인투자촉진시책'을 심의·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산업부는 이번 외국인투자촉진 시책에서 올해 외국인투자 목표로 '4년 연속 200억 달러 이상 유치, 양질의 일자리 1만

개 창출'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중점과제로 ▲고용창출·혁신성장을 위한 유치기반 구축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투자유치 양적·질적 고도화 ▲외국인투자 친화적 환경 조성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외국인투자 유치기반 구축을 위해 고용·신산업 분야 투자지원을 확대하고 자유무역·경자구역 등 경제특구를 개편해 핵심기능별 차별화된 정책지원으로 4차 산업혁명 허브 육성을 추진한다.

예를 들어, 신산업지역은 신기술기업

유치를 특화하고 서비스지역은 관광 등 고부가 서비스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특히 투자유치 고도화를 위해 바이오, 반도체, 자동차, 로봇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12대 유망 신산업 분야를 집중 유치하고 국내외 기업 매칭 지원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시스템 고도화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외국인투자 확대를 위한 맞춤형 매칭 지원 및 채용박람회 확대, 우수 외국 교육·연구기관 유치 등 정주여건 개선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세종=최신용 기자

중소중견기업 맞춤형 디자인 인력 지원

산업부, 올 40개 사업 선정
디자인진흥원 홈페이지 접수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디자인진흥원은 2018년 중소기업 디자인인력지원 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디자인 활용률이 저조한 중소기업 등에 맞춤형 디자인 인력을 지원하는 이번 사업은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156개사에 180여 명의 디자인 인력을 지원했다.

올해는 지원 기업분야 및 지원 디자인 인력 범위, 급여기준 등을 개편해 보다 다양한 기업과 인력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대기업은 중소기업 중심에서 사회경제적 기업, 스타트업 등으로 확대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경력직뿐만 아니라 신입직 분야도 신설해 지원한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일부 직급의 최저 급여기준도 상향 조정했다.

올해 사업에는 40개를 선정할 예정이며 기업 선정 후 개별 기업이 원하는 분야의 디자인 인력을 별도로 선발해 매칭할 계획이다.

선정된 기업 및 인력에 대해서는 디자인 인식 제고 및 역량강화, 중소기업에 대한 이해제고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도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한국디자인진흥원 홈페이지(www.kidp.or.kr)를 참고하여 이달 3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근 많은 글로벌 기업과 대기업들은 디자인을 기업 성장을 위한 혁신전략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으나 우리 중소기업들의 디자인 활용률은 16%로 선진국 대비 1/3 수준"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들이 디자인을 경험하고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원 인력의 정규직화에도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

'농식품 벤처창업 인턴제' 참가자 모집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12일부터 28일까지 '2018 농식품 벤처창업 인턴제'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농식품 벤처창업 인턴제는 창업을 희

망하는 청년들에게 현장경험 습득 기회를 제공하고 참여기업에는 잠재적 사업 파트너 발굴 기회를 지원해 멘토-멘티 간 협업 구조를 만드는 프로그램이다.

모집대상은 인턴의 경우 농식품 분야 창업을 희망하는 만 39세 이하의 예비창업자며 멘토기업은 전년도 매출액 1억원 이상, 상시근로자 3인 이상의 농식품 분야 기업이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협약을 거쳐 3~5개월간 주 24시간의 인턴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세종=최신용 기자

“코딩 모르면 초등교사 힘들다” SW이해 필수학점으로

초·중학교 소프트웨어 교육 필수화
2020년까지 중학교 3학년도 적용
대학별 심화전공 교육과정 개선 등

초·중등학교 소프트웨어 교육 필수화에 따라 올해부터 모든 예비초등교원들이 소프트웨어 교육을 받는다. 교대 등의 컴퓨터관련 필수이수학점이 확대되고, 내용도 기존 컴퓨터 활용보다는 '컴퓨터가 사고하는 방식'인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해로 개선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2018년부터 교원양성대학 소프트웨어 교육 강화 지원 사업(SWEET·SoftWare Education for all Elementary Teachers)을 신규로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오는 22일까지 서울교대와 경인교대 등 전국 10개 국립교



초·중학교 소프트웨어 교육 필수화에 따라 올해부터 모든 예비 초등교원들이 소프트웨어 교육을 받는다. /오픈엑스

대와 한국교원대, 제주대 등 국립중학교 원양성대학 등 총 12개 초등교원 양성대학으로부터 사업제안서를 받아 심사를 거쳐 각 대학에 총 23억4000만 원을 소프

트웨어 교육 용도로 지원할 계획이다. 대학별 지원금은 대학이 제출한 사업 계획서 등 평가 결과와 학생 수, 참여교원 수, 부속학교 수, 수혜학생 수를 고려해

확정된다.

소프트웨어 교육은 2015개정교육과정에 따라 초·중학교에서 필수화됐다. 올해 중학교 1학년을 시작으로 2019년에는 초등학교 5·6학년과 중학교 2학년에서 시행되고, 2020년에는 중학교 3학년에도 적용된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교과서와 보조교재 개발과 보급, 소프트웨어 교육 연구·선도학교 지원, 실습 인프라 확보, 교원 충원과 전문성 강화 등 종합적인 소프트웨어 교육 기반 마련에 나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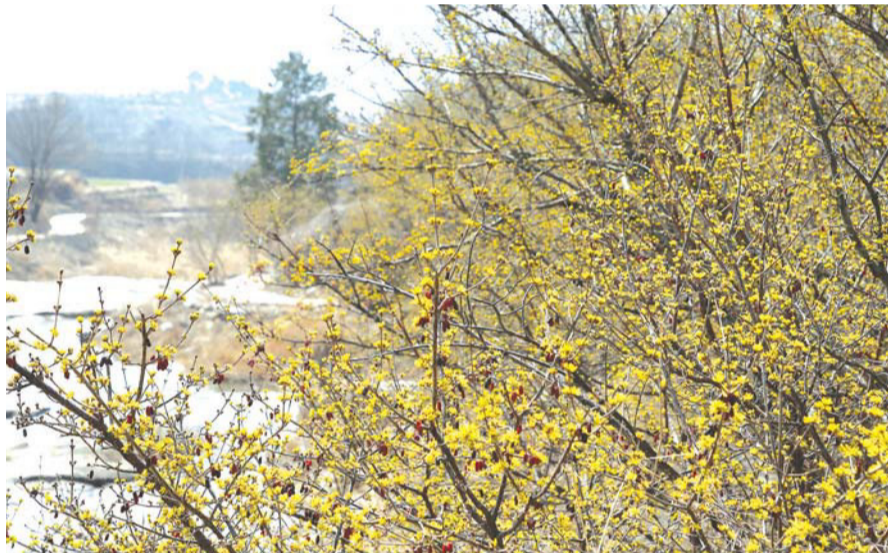
기존 현직교원 연수에서도 소프트웨어 교육이 병행된다. 올해까지 전체 초등교사의 약 30%인 6만명과 중등 정보·컴퓨터 자격 소지교사 8천여명이 교육을 받고, 이번 사업을 통해 교원양성단계부터 소프트웨어 역량 교육이 진행된다.

초등교원양성대학 소프트웨어 교육

강화 지원사업은 공동참여 과제와 대학별 과제로 운영된다. 대학 공동참여과제는 초등교원양성대학의 소프트웨어 교육과정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것으로, 12개 대학의 핵심교원이 참여해 교육에 필요한 과목과 교수요목, 필요 이수 학점 등을 제시할 계획이다. 대학별 과제는 대학이 자체적으로 소프트웨어 관련 필수이수학점 확대와 강의 내용 개선, 컴퓨터 심화전공 교육과정 개선 등으로 이뤄진다.

최은옥 평생미래교육국장은 “초등예비교원의 지도역량을 강화해 소프트웨어 교육이 학교현장에 정착하고 발전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했다는 데 큰 의미를 갖는다”며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인재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내실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봄빛’ 물든 산수유 마을
포근한 날씨를 선보인 11일 오후 전남 구례군 산동면 산수유마을 일대에 봄을 알리는 노란 산수유꽃이 활짝 피었다. 구례에서는 오는 17일부터 25일까지 ‘구례산수유꽃축제’가 열린다. /연합뉴스

광주시, 혁신도시 연구기획TF 운영 활성화

문화·에너지·ICT융합·농생명 분야
시정시책 연계·발전방안 모색 기여

광주시가 광주와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간 연계 강화를 위해 운영 중인 ‘혁신도시 연구기획 TF’ 활성화에 주력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혁신도시 연구기획 태스크포스(TF)는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과 연계해 문화, 에너지, ICT융합, 농생명 분야를 담당하는 4개 분과위원회와 이를 총괄하는 운영위로 구성, 혁신도시 연계사업 발굴과 추진상황 점검 등의 활동을 벌이고 있다.

시는 그동안 정주여건 개선이나 시정시책과 연계한 다양한 발전방안 모색에 기여하는 등 일부 주관부서의 긍정적인 면은 살리면서 분과위원회 주관 부서와 분과위원들의 관심 부족 등 다소 아쉬운 부분은 적극 개선키로 했다.

특히 분과위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위원수를 15명 이내로 정예화하고, 위원도 기존 대학교수와 연구원에 이전 공공기관 관계자 등을 추가 참여시켜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분과위원 회의도 격월 의무적으로 열고, 이를 점검하는 반기별 보고회를 개최키로 했다.

아울러,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를 지역

경제 활성화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전 공공기관과 연계한 공동사업 발굴과 협력 강화, 지역 인재 육성 등 산·학·연·관이 연계해 지역의 동반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협력체계 구축 등을 통해 지역상생발전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김병규 시 혁신도시협력추진단장은 “올해는 ‘혁신도시 시즌’이 시작되는 첫해로, 하드웨어적인 면에 집중한 시기에서 소프트웨어에 집중하는 시기로 변화하는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며 “TF팀이 혁신도시와 연계한 다양한 사업발굴 등을 통해 광주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시스탬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광주=김남중 기자 5555knj@

‘만족도 92점’ 다람쥐버스 노선 3개 추가

출근시간 맞춤버스인 ‘다람쥐버스’ 노선이 3개 더 늘어난다.

서울시는 26일부터 장안·답십리, 세곡·수서, 신림 지역에 다람쥐버스를 새로 투입해 운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다람쥐버스는 출근 시간대인 오전 7시~9시 승객이 몰리는 구간 사이만 반복 운행해 만원버스의 혼잡도를 낮춘다. 서울시는 현재 8761번(광충창역~국회의사당), 8771번(구산중~녹남역), 8551번(봉천역~노랑진역), 8331번(마천사거리~잠실역) 구간에 다람쥐버스를 운행하고 있다.

이번에 확대되는 노선은 ▲8221번(장안2동 주민센터~장한평역~활영소 사거리~답십리역) 5대 ▲8441번(세곡보금자리지구~수서역) 4대 ▲8552번(신림종합사회복지관~우림시장~신림체육센터~신림역) 4대다. 운행 시간은 오전 7시~9시다.

서울시는 차내 혼잡 정도(재차인원 60명 이상), 혼잡구간 길이(왕복 10km 내외의 단거리), 혼잡지속시간(1시간 내외) 등을 고려해 이번 신설 노선 구간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다람쥐버스를 개통한 2017년 6월 26일부터 이달 2일까지 이용자 수는 총 41만4254명(일 평균 2436명)에 이르고 밝혔다. 일평균 이용자 수는 8개월 사이 34.1% 늘었다. 기존 노선 버스 이용객수는 하루 평균 110~180명 줄었다.

버스정류소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

T)에 ‘혼잡’으로 표출되는 횟수도 25~40% 감소했다.

다람쥐버스에 대한 시민 만족도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다람쥐버스 이용 시민 설문조사 결과, 종합만족도는 일반 시내버스(81점)보다 11.1점 높은 92.1점이었다고 밝혔다.

시민들은 ‘기존 노선의 혼잡도 개선에 도움이 됐다(96.2%)’, ‘타 지역 노선신설에 찬성한다(95.8%)’ 등 긍정적인 대답을 내놨다.

응답자의 6.2%는 다람쥐버스 도입 이전 출근시간대에 버스를 타지 않았던 사람(지하철 5.7%, 자가용 0.3%, 도보 0.2%)으로 나타났다. 시는 다람쥐버스가 버스의 승승분담률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한다.

아울러 시는 다음달 16일부터 퇴근 시간대에도 다람쥐버스를 시범 운영한다. 기존 노선 4개 중 퇴근시간대 혼잡도가 가장 높았던 8761번(신촌로터리~국회의사당)을 평일 저녁시간대인 오후 5시 30분~오후 7시 30분에도 운행한다.

시는 차내 혼잡현상 완화 효과를 모니터링한 뒤, 타 노선의 확대 시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고흥서 도시교통본부장은 “‘수요대응형 버스서비스’의 발굴과 운영 개선을 통해 버스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범중 기자

서울시, 남산공원·삼청공원 등 ‘유아숲체험원’ 47개소 개장

서울시가 남산공원과 삼청공원 등에 조성한 유아숲체험원 47개소를 12일 동시 개장한다.

유아숲체험원은 어린이들이 자연물을 장난감으로 삼는 숲 체험장으로 기획됐다. 이용 대상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정기간 기관과 유아를 둔 개인으로 구분된다. 지난해까지 총 87만8610명이 이용했다.

서울시는 올해 체험원 사전 신청을 한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506곳에 이르고 11일 밝혔다. 해당 기관들은 매주 정해진 시간에 인근 유아숲체험원에서 상주하는 유아숲지도사와 함께 숲 체험을 할 수 있다.

유아숲을 이용하지 않는 어린이집·유치원에 다니는 유아들도 유아숲을 이용할 수 있다. 별도의 사전신청이나 비용 없



서울 서대문구 인왕산 유아숲체험원의 뱃줄놀이. /서울시

이 평일 또는 주말에 가까운 유아숲체험원을 방문해 부모와 아이들이 자유롭게 숲 체험을 하면 된다.

다만 평일에는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어린이집·유치원생들과 겹칠 수 있다. 시는 올해 체험원 5개소를 추가 조성할 계획이다. 이중 3개소가 시민참여예산으로 만들어진다. /이범중 기자 joker@

남도 매화, 일본 봄꽃 여행객 사로잡나

한국관광공사가 일본인 관광객 2000명 유치에 ‘한국 봄꽃여행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추진한다.

한국관광공사 후쿠오카지사는 오는 4월까지 한국 봄꽃을 테마로 대규모 봄철 방한상품 판촉과 함께 개별 여행자(FIT)대

상 홍보 캠페인을 펼친다고 11일 밝혔다.

JTB, 한류교통사, 요미우리여행사 등 일본 주요 여행사와 공동으로 일본인이 선호하는 주력 관광 소재인 벚꽃, 산수유, 매화 등 한국의 다양한 대표적 꽃들과 함께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 등의 봄

철 방한 상품을 집중 개발했다.

이번 봄꽃상품 코스에는 산수유로 유명한 구례, 이천 및 매화 산지 광양 등 신규 봄꽃 명소와 함께 아산, 부여, 목포, 남원 등 새로운 국내 여행지가 대거 포함됐다.

앞으로 담양, 목포, 보성, 하동 등을 소개하는 가이드북도 발간해 국내 지역관광 수요를 확대할 계획이다. /전남 광주=김남중 기자

생명보험협회 심의필 제 2018-636호(2018.2.13)



- ☑ 암에 걸리면 **실직**할 수도 있잖아요?
- ☑ **치료비**가 훨씬 **비싼 암**도 있다던데?
- ☑ **60세** 넘어 **암** 걸리는 사람 참 많거든?

그래서, 저 박상원과 라이나생명이 튼튼한 암 보장을 선언합니다!

[라이나생명(무)플러스암보험(갱신형)]

암, 치료법이 좋아지는 만큼
대비해야 할 비용도 늘었습니다.
비급여 신약치료비, 간병비, 생계비도
생각한다면 든든한 보장의
라이나플러스암보험에 지금 전화주세요!



신약치료비



간병비



생계비



박상원 / 생명보험판매자격보유

• 본상품은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 보장형 상품으로, 15세부터 60세까지 가입 가능하며, 10년마다 갱신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음 •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해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임 • 기존보험 계약해지 후 신계약 체결 시 보험인수 거절, 보험료 인상 또는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 • 보험 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람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음



24시간 상담 신청
지금 전화 주세요

080-763-7070

‘선거 파행’ 소상공인聯, 일단 봉합... ‘2파전’ 양상

LG하우시스, 주총서 민경집 신임대표 선임

LG하우시스 가 지난 9일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민경집 부사장(사진)을 새 대표이사로 선임했다고 11일 밝혔다.



민경집 신임 대표는 1989년 LG 화학 기술연구원으로 입사한 이후 연구개발, 기획, 전략 등의 업무를 두루 거친후 2009년 당시엔 새로 출범한 LG하우시스의 연구소장을 맡아 건축자재, 자동차부품소재 분야의 원천기술 개발을 주도했다.

특히 ▲옥수수 원료의 식물성 수지(PLA)를 적용한 바다재·벽지 세계 최초 개발 ▲로이유리와 PF 단열재 등 에너지세이빙 분야 신사업 육성 ▲자동차원단 및 경량화부품 등 자동차소재부품 사업 경쟁력 강화 등에 앞장서며 LG하우시스의 지속 성장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민 신임 대표는 이같은 사업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향후 LG하우시스가 프리미엄 건축자재 중심의 사업구조 전환과 자동차부품의 성과 가속, 해외매출 확대 등을 통해 글로벌 시장선도 기업으로 성장해나가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받고 있다.

LG하우시스는 또 이날 주총에서 기타비상무이사로서 ㈜LG 하현희 부회장을 재선임했다. 또 지난해 재무제표 내역을 승인받고 보통주 1800원, 우선주 1850원의 배당도 확정했다. /김승호 기자



소송·정치권 개입설로 ‘내홍’ 최승재·이봉승 후보등록 마감 30일 총회서 회장 선거 재개

한 차례 무산됐던 소상공인연합회장 선거가 경선으로 치러지게됐다.

현 최승재 회장과 한국귀금속가공업협동조합연합회 이봉승 회장의 ‘2파전’이다. 이런 가운데 민간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 선거 과정에서 ‘정치권 개입설’이 불거지고 있지만 의혹 당사자인 더불어민주당은 이와 관련해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태다. <본지 2월21일자 3면 참조>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9일까지 있던 소상공인연합회장 선거후보 등록에 최승재 현 회장과 이봉승 귀금속조합연합회장이 지원했다.

이에 따라 두 후보는 10일부터 선거운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이봉승 귀금속가공업(연)회장

동을 거쳐 이달 30일 예정된 정기총회에서 차기 회장 자리를 놓고 격돌하게 된다. 당초 연합회는 지난달 23일 정기총회를 열고 회장을 선출할 예정이었다. 당시 차기 회장 후보엔 현 최승재 회장이 단독 입후보했다.

하지만 한국석유일반판매조합회 등 3개 단체가 임원선거공고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고, 선거 전날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가 이를 일부 인용하면서 총회가 이달 말로 연기됐다.

연합회측은 “법원의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고 총회도 연기하기로 결정한 바 있고, 아울러 공명하게 선거를 관리하기 위해 연합회 선거 업무 전반을 비롯해 전반

적인 업무를 현 김임용 수석부회장이 총괄해 관리하고 최 회장은 선거가 있는 정기총회까지 시급한 현안 등에 대해서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최 회장의 임기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정기총회에서 후임 임원이 선출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정관에 따라 차기 회장 선출시까지 회장직을 수행키로 했다는 게 연합회의 설명이다.

이런 가운데 최 회장과 경선을 치르게 될 이봉승 회장은 귀금속조합연합회장으로 앞서 소상공인연합회의 정상화를 바라는 모임을 별도로 만들어 정치권에 연합회에 대한 행정감사를 요청한 단체장 중 한 명이다.

귀금속조합연합회, 전국지하도상가상인연합회 등 20여개 단체가 참여한 ‘정상화추진위’는 지난달 초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특별위원회 위원장 앞으로 공문을 보내 연합회를 감사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런데 20여개 단체 중에선 소상공인연구원 이사장을 맡고 있는 전 모씨도 이름을 올렸다. 전 모씨는 정상화추진위가 발송한 공문의 수신처인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특별위원회 위원장 전 모씨와 같은 인물이다.

민간단체의 회장 선거에 정치권 입김이 들어갔음을 짐작케하는 대목이다.

추진위 발송 공문에 이름이 포함된 단체장은 “전 모씨를 위하는 모임에 참석하러 갔다가 이름을 썼는데 그런 공문에(명단이)올라가게 됐다”며 난색을 표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연합회 지역회장단들은 지난달 27일 국회를 방문, 기자회견을 하고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특별위원회가 연합회장 선거에 부당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추미에 대표에게 진상 조사와 함께 책임자를 처벌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측 반응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상공인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는 “민간 법정 경제단체로 ‘소상공인 정책 허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 새로 치러지는 선거를 공명정대하게 관리해 700만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회장을 선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LH, 신혼부부 전세임대 6500가구 공급

자격요건 조정... 지원대상·금액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전년도 공급 물량(5500가구)보다 1000가구가 늘어난 총 6500가구의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주택도시기금에서 용자·지원하는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신혼부부가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LH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신혼부부에게 다시 임대하는 사업이다.

지역별 공급 물량은 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에 3704가구, 5대 광역시가 1330가구, 기타지역 1466가구 등 총 6500가구 규모다.

특히 올해는 더 많은 신혼부부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전년 기준인 혼인 5년 이내 신혼부부에서 7년 이내 신혼부부로 조정하고 지원가능 금액도

대폭 증액했다.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중 생계·의료 수급자 또는 월평균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이 70% 이하인 자가 지원 대상이다. 올해 입주예정이며 입주 전에 혼인 신고를 마친 예비신혼 부부도 신청할 수 있다.

지원가능 금액은 전년 대비 최대 3500만원이 증액돼 수도권은 1억2000만원, 광역시는 9500만원, 기타 지역은 8500만원 까지 지원 가능하다.

입주자는 지원한도 내 전세보증금의 5%의 임대보증금과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1~2%의 월 임대료를 부담하게 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정연우 기자 yw964@

청호나이스 “6방향에서 빠르고 강력하게 흡입”

‘청호 6Way 멀티순환 공기청정기’

청호나이스는 더블 팬으로 강력하게 흡입하고 6개의 토출구를 통해 실내 공기를 고르고 빠르게 청정 순환시켜주는 ‘청호 6Way 멀티순환 공기청정기’ (사진)를 출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제품은 ▲강력한 청정 성능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4단계의 청정도 디스플레이 ▲전기요금 부담 없는 에너지 1등급 ▲어느 공간에도 잘 어울리는 슬림한 디자인 ▲사용 환경에 맞는 스탠드·벽걸이형 선택 가능 등이 특징이다.

특히 2개의 팬과 2개의 BLDC 인버터 모터, 2개의 필터세트로 구성돼 뛰어난 흡입·청정 기능을 자랑한다. 전면의 더블 팬으로 강력하게 빨아들인 공기를 더블 필터로 걸러낸 후 6방향의 토출구를 통해 내 보냄으로써 실내공기를 골고루 빠르게 순환시킨다.



사용편리성을 위해 멀리서도 조작이 가능하게 리모콘도 탑재했다. 취침 모드 시엔 청정 LED 디스플레이를 끄고 소음을 최소화해 수면에 방해가 되지 않게 배려했다. 2개월 또는 3개월 마다 필터교체 등 위생클리닝 서비스를 진행하며 3개월 방문 서비스의 경우 월 렌탈료는 4만1900원이다. /김승호 기자



지난해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개막한 게임 전시회 ‘지스타 2017’을 찾은 관람객들의 시연 공간에서 각종 게임들을 체험하고 있다. /연합뉴스

WHO “게임중독 장애, 질병으로 분류해야” 국내외 학계 반발... “게임포비아서 비롯”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중독으로 인한 장애를 질병으로 분류하겠다고 예고한 것에 반발하는 학계 전문가들이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세계적인 권위의 정신건강 전문가와 사회과학자, 각국 연구센터 및 대학 교수진 등 관련 전문가 36명이 WHO의 게임 장애 항목 신설 계획에 반대할 뜻을 나타냈다.

게임 장애를 정확하게 정의하고 어렵고, 명확한 과학적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1일 헝가리에서 발간되는 임상심리학 분야 오픈 액세스 학술지 ‘행동 중독 저널’에 따르면 정신건강과 사회과학 등 게임 관련 분야를 연구하는 전문가 36명이 WHO의 방침에 반대하는 논문을 투고했으며 게재가 확정됐다.

WHO는 오는 5월 열리는 국제질병분류기호 개정(ICD-11)에서 게임 장애를 질병으로 등재하는 방향을 검토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WHO의 지정에 반대하는 이들은 ▲해당 진단을 지지하는 연구진 간에도 게임 장애를 정확하게 정의하기 어렵다는 점 ▲기존 근거들이 빈약하다는 점 ▲연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의도로 질환을 공식화하는 것은 광범위한 범위의 비임상적인 사회 맥락을 간과할 수 있

다는 점 등을 이유로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취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내뿐 아니라 브라질, 미국, 캐나다, 남아프리카, 호주와 뉴질랜드, 유럽(18개국) 등의 게임산업 단체들은 WHO의 계획에 반대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지난 9일 국내에서는 서울 서초구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열린 ‘게임문화의 올바른 정착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게임을 질병과 연결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기조 발제로 나선 한덕헌 중앙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WHO가 제시한 게임 중독의 진단 기준에도 내성과 금단 증상이 빠져 있어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각국 전문가가 내놓은 논문의 내용과 같은 맥락이다.

윤태진 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교수는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려는 시도가 ‘게임포비아’에서 비롯됐다고 분석했다.

업계에서는 게임의 부정적인 측면이 아니라 긍정적인 요소에 대해서도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게임의 교육적, 치료적, 레크레이션적 가치가 이미 정립돼 있고, 디지털 사회에서 게임은 성공적인 삶에 필요한 주요 능력과 기술, 태도를 습득하기 위한 유용한 도구로서 활용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김나연 기자 silkni@

조스떡볶이, 10주년 기념 창업 지원 프로모션 진행

조스떡볶이의 조스떡볶이가 창립 10주년을 맞아 신규 가맹점주들을 위한 창업 지원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조스떡볶이는 신규 가맹점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며 안정적인 창업을 돕고자 다양한 창업 지원 혜택을 마련했다.

이번 프로모션을 통해 조스떡볶이 창업을 희망하는 점주는 창업 지원 비용으로 50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인테리어 시공은 점주가 원할 경우 자체 시공도 가능하다.

또 고매출 가능성이 있는 상권 분석 및 선정과 점주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도 제공한다.

조스떡볶이 관계자는 “조스떡볶이는 크게 유행을 타지 않는 분식이라는 아이템과 비교적 저렴한 창업자금으로 예비 창업주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며 “이번에 마련한 창업 프로모션이 좋은 기회가 돼 보다 경제적인 가격으로 안정적인 창업을 이루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인용 기자 parkiu7854@

균일가의 힘!... 롯데마트 '온리프라이스' 고객 2배 급증

생필품 등 동일가격으로 판매해
가계 지출 줄이는데 도우미 역할

가성비를 강조한 대형마트의 자체 브랜드(PB)를 선호하는 고객들이 크게 늘고 있다. PB상품이 가계 비용 지출을 줄이는데 있어 확실한 도우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11일 롯데마트에 따르면 올해 2월까지 PB상품 매출이 12.5% 늘었다. 외식의 대체재라고 할 수 있는 가공일상부품 PB상품 매출이 21.7% 오르며 전체 PB상품 매출의 신장세를 이끈 가운데 즉석밥, 면 등 대용식의 매출이 56.4% 증가했다.

또 PB주방용품의 매출도 7.4% 증가하는 등 고객들은 물가 인상 속에서 가성비 높은 대형마트 PB상품을 많이 찾고 있는



고객들이 롯데마트 매장에서 온리프라이스 상품을 고르고 있다.

/롯데마트

것으로 나타났다.

균일가 정책을 유지하는 롯데마트의 P

B브랜드인 '온리프라이스'의 매출 신장이 눈에 띈다.

롯데마트가 지난해 2월부터 선보이는 온리프라이스는 상품 가격에 대한 고객의 신뢰 회복을 위해 운영기간 내내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PB 브랜드다. 종이컵, 화장지 등 소모성 생필품을 중심으로 현재 180여 개 상품을 운영 중이다.

출시 초기인 지난해 4월 기준으로 온리프라이스 상품을 구매한 고객은 월 평균 52만명 수준이었으나, 올해 2월에 접어들며 이 보다 2배 가량 늘어난 월 평균 100만명에 달하고 있다.

이는 '상품 기획 단계부터 원가 요소를 철저히 분석, 품질은 유지하되 최적의 가격을 유지한다'라는 브랜드 철학이 올해 초부터 시작된 생필품 가격 인상과 유통업체에서 수시로 진행되는 할인행사에 지친 고객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온리프라이스는 한 번 사용해 본 경험이 있는 고객들에게 품질에 대한 확신을 심어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롯데마트가 지난해 4월부터 올 2월까지 온리프라이스 상품을 한 달 동안 한 번 이상 구매한 고객들의 장바구니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한 번 장을 볼 때 평균 25가지의 상품을 구매하며, 평균 6만 9000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창희 롯데마트 MD본부장은 "제조과정에서의 혁신을 통해 발생한 잉여가치를 고객과 나눈다는 것도 온리프라이스가 가진 브랜드 철학 중 하나"라며 "생필품과 식음료 가격이 오르는 가운데 양질의 상품을 변함없는 가격에 제안하는 온리프라이스 브랜드를 찾는 고객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ujin6326@metroseoul.co.kr

화이트데이와 어울리는 '핑크빛라떼' 선풍

커피업계, 딸기 등 블렌딩 제품 출시
화려한 색상·부드러운 음용감 담아

커피업계가 화이트데이를 맞아 화려한 색상과 비주얼을 담은 음료를 선보이고 있다.

특히 우유가 들어가 음용감이 부드러운 라떼를 선호하는 가운데 화이트데이와 잘 어울리는 핑크빛 색상의 라떼가 대표적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커피전문점에서는 소비자들의 취향에 맞추기 위해 딸기, 라즈베리 등 과일과 우유를 블렌딩한 핑크빛 라떼를 선보이고 있다. 달콤한 맛은 물론 비주얼까지 견비해 연인들의 눈을 즐겁게 하고 있다.

투썸플레이스는 '딸기'로 만든 '스트로베리 음료' 3종을 출시했다. '스트로베리 테이스트(Strawberry Taste)'를 주제로 봄의 신선한 향을 느낄 수 있는 딸기 원물을 듬뿍 사용했다. 대표 메뉴인 '스트로베리 초콜릿 라떼'는 세계적 명성의 프랑스 발로나 초콜릿에 소프트 아이스크림과 생딸기를 함께 즐기는 '디저트형 라떼'다. '스트로베리 초콜릿 생크림'을 음료로 마시는 듯하다. 또한 '스트로베리 라떼'도 선보인다.

드롭탑에서는 진한 핑크빛 색상의 딸기 라떼 2종을 출시했다. 딸기 라떼 2종은 딸기 크립에 진한 에스프레소와 우유를 블렌딩한 '딸기 크립 샷 라떼'와 부드럽게 갈린 우유와 딸기가 어우러진 '딸기 라떼'다. 종종히 나눠진 딸기와 우유를 섞어가면서 마시면 딸기의 달콤한 맛을 오래 맛볼 수 있고, 핑크빛 색상이 더욱 진해지는 것을 즐기며 마실 수 있다. 딸기라떼 2종



스트로베리 초콜릿 라떼, 딸기라떼, 벚꽃라떼./라사

은 드롭탑 전국 매장에서 만날 수 있다.

이디야커피도 '벚꽃라떼'를 출시했다. 딸기와 바닐라의 달콤한 풍미와 부드러운 우유가 조화를 이룬 음료로 화사한 핑크빛의 색상이 돋보인다. 음료 상단에 휘핑크림을 풍성하게 올리고 라즈베리 화이트 초콜릿으로 토핑하여 흠날리는 벚꽃 잎을 연상케 했다. 비주얼뿐만 아니라 은은한 벚꽃향을 함께 즐길 수 있다. 오는 5월 말까지 전국 이디야커피 매장에서 한정 기간 판매된다.

엔제리너스커피는 '베리 코코 라떼'를 판매하고 있다. 딸기의 상큼한 맛과 은은한 향이 퍼지는 코코넛밀크의 달콤한 맛이 어우러진 음료다. 생딸기를 넣어 과일 본연의 진한 맛을 느낄 수 있으며 딸기, 우유, 코코넛밀크를 골고루 섞어서 마시면 더욱 고소하고 새콤달콤한 맛이 돋보인다. 엔제리너스 전국 매장에서 3월 말까지 판매된다.

커피빈코리아에서 출시한 봄 한정메뉴 3종 중 '스트로베리 라떼'는 부드러운 우유와 딸기 과우더의 조화가 잘 어우러진 음료로, 우유폼 위에 하트 포인트의 핑크색 강아지 초콜릿을 토핑했으며 핑크색은 천연색소를 사용해 부담없이 먹을 수 있다.

/박인용 기자

올리브영, 자체 색조 브랜드 '컬러그램' 론칭

밀레니얼 세대 타깃으로 개발

CJ올리브네트웍스가 운영하는 국내 대표 헬스앤뷰티 스토어 올리브영은 자체 개발한 색조 화장품 브랜드 '컬러그램(colorgram)'을 새롭게 론칭한다고 11일 밝혔다. '컬러그램'은 쉽고 재미있는 놀이로서의 메이크업을 제안하는 브랜드로, 트렌드에 민감한 밀레니얼 세대가 메인 타깃이다.

/김유진 기자



올리브영 자체 색조브랜드 '컬러그램' 대표제품 '선더볼 틴트 라커'. /CJ올리브네트웍스

'가심비' 앞세운 소형가전, 온라인서 인기

이마트몰

전년비 가전매출 50% 가량 증가
발뮤다 등 구매욕 자극 제품 인기

'죽은 빵도 살려낸다'는 발뮤다 토스터기, 청소를 싫어하던 사람도 청소하게 만든다는 다이슨 청소기 등 소비자의 구매욕을 자극하는 소형가전이 온라인몰을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일반 상품보다 가격은 비싸지만, SNS,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친숙한 2030 세대를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이다.

11일 이마트에 따르면 자사 온라인몰 이마트몰이 올해(1월1일부터 3월4일까지) 가전 매출을 분석해본 결과 구매 고객수는 전년 동기대비 46%, 1인당 구매 단가는 8% 증가하며 매출이 50%가량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가전중에서도 청소기, 공기청정기 등의 생활가전과, 주방가전이 가장 매출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홈 인테리어에 대한 관심이 전반적으로 높아지면서 가구 뿐만 아니라 가전 역시 인테리어를 구성하는 요소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또 개인의 만족을 중요시하는 '가심



한 고객이 이마트몰에서 상품을 둘러보고 있다.

/이마트

비 소비 트렌드가 나타나면서 디자인이나 기능 등 본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에 따라 비싼 값을 지불하더라도 망설임 없이 구매하는 소비자들도 급증했다.

소형가전의 경우 별도의 설치가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고 다양한 브랜드를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온라인 수요가 높다는 점 역시 이러한 신장세의 요인 중 하나다.

'발뮤다'의 경우 토스터기는 단순한 기능이 가격은 3배 이상 비싸지만 깔끔하고 세련된 디자인과 기능으로 입소

문을 타면서 이마트몰 토스터 전체 매출은 전년 대비 5배 이상 늘어났다. 선풍기, 전기주전자 등 다른 상품으로까지 인기가 확대되고 있다.

김진설 이마트몰 마케팅 팀장은 "개인적인 만족을 중시하는 가심비 소비 트렌드로 고가의 가전이 인기를 끌면서, 오프라인 비해 다양한 브랜드를 쇼핑할 수 있는 온라인 몰 가전 매출이 늘어난 것"이라며 "향후에도 소비 트렌드에 맞춰 오프라인과 차별화된 상품을 고객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스타벅스, 빅데이터 활용했더니 모바일 주문량 대폭 상승

월평균 약 10만건씩 늘어나

스타벅스커피 코리아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추천 서비스 도입 후 주문건수가 월 평균 약 10만건씩 증가했다고 11일 밝혔다.

스타벅스는 지난해 11월 빅데이터를 활용한 개인별 맞춤형 추천 서비스를 추가한 사이렌오더를 새롭게 업그레이드해 출시했다. 이 서비스는 개인의 최근 구매 이력을 비롯해 매장 정보, 주문 시간대, 기온과 같은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관련 분석을 통해 맞춤형 상품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스타벅스 앱의 사이렌오더(Siren Order)를 실행하면, 시간대와 기온에 따라 해



스타벅스 사이렌오더 내 고객 맞춤형 추천 화면. /스타벅스

당 매장에 방문한 고객들이 선호하는 메뉴들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제공된다.

영하의 날씨나, 전날보다 2도 이상 떨어진 추운 날씨에는 따뜻한 음료들이 추천되며, 고객이 음료를 담은 순간 해당 음료와 함께 많이 판매된 푸드 메뉴 추천도

함께 제공한다. 고객 행동의 결과에 따라 실제 의미 있는 조합들을 제시해 신제품이 출시되도 하루 이틀 내에 개인별 선호하는 음료와 푸드 조합을 찾아 추천하기도 한다.

특히 현재 전체 사이렌오더 주문건수 중 37%가 이번에 신규 업그레이드한 추천 항목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 것이 고무적이며, 월 10만건 정도의 전체 주문에 대한 순증 효과도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백지웅 스타벅스 마케팅&디지털 총괄 부장은 "빅데이터 활용은 이제 출발점으로, 향후 좀 더 다양한 빅데이터를 활용해 보다 고도화된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 선보여 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박인용 기자 parku7854@

조양호 한진회장, '방위산업 발전' 감사패 받아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한국방위산업진흥회(방진회) 회장에서 물러나며 한국 방위산업의 발전을 이끈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

11일 한진그룹에 따르면 조양호 회장은 지난 9일 오전 서울시 영등포구 소재 공군회관에서 개최된 '방진회 2018년도 정기총회'에서 지난 14년간 맡아온 방진회 회장직을 내려놨다. 이어 재임기간 동안 한국방위산업의 발전을 이끌고 투명성을 높인 공로로 제16대 방진회 회장으로 선임된 최평규 S&T그룹 회장으로 부터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조 회장은 2004년 6월 제11대 방진회 회장으로 선임된 이래 14년간 활동해 왔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지난 9일 한국방위산업진흥회 2018년도 정기총회에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오른쪽)이 신임 방진회 회장으로 선임된 최평규 S&T그룹 회장으로부터 감사패를 전달 받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SK하이닉스 패럴림픽 성공개최 응원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대회 반도체 부문 공식후원사인 SK하이닉스가 이 대회의 성공개최를 응원하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지난 9일 평창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열린 개막식에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행복모아(주) 임직원 25명, SK하이닉스 임직원, SK 대학생 자원봉사단 씨니 자원봉사자 등 총 40여명이 참석했다고 11일 밝혔다.

행복모아(주) 박철웅 사원은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성화봉송 주자로 참여했는데, 동계패럴림픽대회 개막식에도 참석할 수 있어 더 뜻



9일 평창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열린 개막식에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행복모아(주) 임직원, SK하이닉스 임직원, SK 대학생 자원봉사단 씨니(SUNNY) 자원봉사자 등 40여명이 모여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SK하이닉스

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행복모아(주)는 사회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설립됐으며, 올해부터 모회사인 S

K하이닉스의 방진복 제조와 세탁의 일부를 시작했다. 다음 달에는 사업장 준공식도 가질 예정이다. /정은미 기자 21cindun@

새로 나온 책 지하철에서 책 읽는 여자

현대문학/크리스틴 페레플리리 지음



'지하철에서 책 읽는 여자'는 '책'의 진정한 주인을 찾아 떠나는 모험 이야기로, 반복적인 일상에 위로와 희망을 전하는 소설이다. 프랑스 대표 출판사 갈리마르에서 편집자로 다양한 책을 기획하고 편집한 작가 크리스틴 페레플리리가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책을 마주하고, 책의 참된 가치를 지켜봐온 경험과 애정에서 우러난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한다. '책이 인생을 바꿀 수 있을까?'라는 궁극적인 물음에 매일매일 반복되는 따분한 삶을 사는 소심한 여주인공 윌리에트를 내세워 경쾌하고 산뜻하게 그 해답을 찾아간다. 주인공 윌리에트는 '지하철-일-잠'으로 표현되는 전형적인 직장인의 삶을 사는 평범한 인물이다. 그런 그녀를 단조로운 일상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나게 해주는 '구원의 매체'가 바로 책. 하지만 그는 자신이 읽는 책으로 간접 경험을 하고, 주변 사람들이 읽고 있는 연애소설이나 요리책을 보며 대리만족을 할 뿐이다. 그러던 어느 날 운동 책으로 둘러싸인 곳에서 책을 정리하고 있는 남자 '솔리망'을 만나게 되고, 그로 인해 새로운 '책 전달자'가 된 주인공은 독자의 손에 알맞은 책이 들어갈 수 있도록 사람들을 잘 관찰해 그들의 내면 깊은 곳에 쌓여 있는 고민을 해결해주는 일을 맡기 시작한다. 이후 그녀는 책을 둘러싼 기묘한 소용돌이 속으로 휩쓸려 들어가고, 이때껏 한번도 상상해본 적 없는 모험을 맛답게 하게 된다.

248쪽, 1만 2000원

/신정원 기자 sjw1991@

죄의 목소리

BNL/시오타 타케시 지음



일본 쇼와시대 최대의 미제 사건이라고 불리는 '구리코·모리나가 사건(일명 강만 사건)'을 소재로 한 소설이다. 신문 기자로 일했던 작가는 십수년간 집요하게 사건을 파헤쳐 실제보다 더 생생한 현장감으로 사건의 발생 일시, 장소, 협박장의 내용과 사건 보도 내용 등을 사실 그대로 재현해 추적 과정을 그렸다.

544쪽, 1만 4800원

/신정원 기자

신점 [神占] 운세 3월 12일 (음 1월 25일)

힐링운세 (www.healingunse.com) 060-800-8877

- 쥐** 60년생 마음의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72년생 음주와 흡연을 피하세요. 84년생 신경을 많이 쓰면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96년생 피하는 일은 반드시 허망할 것입니다.
- 소** 61년생 꽃이 세리를 만나니 일신이 고달픕니다. 73년생 천천히 계획을 실천해 나가면 이루어집니다. 85년생 동업자나 주위의 의견을 듣고서 진행하세요. 97년생 성급하게 큰 것을 바라지 마세요.
- 호랑이** 50년생 성심 성의를 다하여 일하세요. 62년생 작은 자리라도 만족하면 길합니다. 74년생 배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열심히 하세요. 86년생 옛날로 말하면 장원급제 할 것입니다.
- 토끼** 51년생 좋은 기술을 배울 여건이 됩니다. 63년생 학업에 열중하면 좋은 결과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75년생 사업 시기가 좋습니다. 87년생 건강을 조심하세요.
- 뱀** 52년생 자금 회전이 원활합니다. 64년생 무사 튼튼하게 노력하고 정도를 걸어야 합니다. 76년생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길 것입니다. 88년생 업무 처리 시 주변에 인원이 적을수록 좋습니다.
- 뱀** 53년생 배운다는 자세로 임한다면 불리함이 적을 것입니다. 65년생 인내심과 끈기가 많이 필요합니다. 77년생 기다리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89년생 좋은 기운이 감싸고 있습니다.

- 말** 54년생 평소 생활을 계속해 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66년생 일손을 놓고 쉬고 있을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78년생 막혔던 자금이 풀리게 됩니다. 90년생 급한 혼인은 좋지 않습니다.
- 양** 55년생 사업은 차차 진전이 있습니다. 67년생 여기저기서 구원의 손길이 찾아옵니다. 79년생 구설수를 조심하세요. 91년생 시험 본 것이 있다면 합격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 원숭이** 56년생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입니다. 68년생 사업을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80년생 여행은 떠나지 마세요. 92년생 주변의 여건이 너무 맞지 않습니다.
- 닭** 57년생 안 좋은 습관은 고치려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69년생 큰 욕심을 내면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81년생 하늘이 큰 복을 주게 됩니다. 93년생 얻는 것이 많으니 세상일이 태평스럽습니다.
- 개** 58년생 사람들과의 관계를 원활히 하세요. 70년생 미래에 항상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82년생 서로 함께하면 쇠를 끊을 정도로 힘이 생깁니다. 94년생 시소한 것에 신경 쓴다면 득이 됩니다.
- 돼지** 59년생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입니다. 71년생 공로를 인정하여 포상을 구상하게 됩니다. 83년생 차조심해야 하겠습니다. 95년생 유명한 회사에 당당히 취직됩니다.

SUDOKU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 듬뿍! 아이큐 쑥쑥!

-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 가로·세로 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친화운세상담 홍카페 10분 무료상담 이벤트!
홍카페 접속 후 회원가입 시
추천인 아이디어 METRO 입력하면 10분 무료상담!!
타로, 연애, 심리 1:1 전화상담 홍카페
(www.hongcafe.com)

	8		6		9			
1		2				7		3
7								4
		8	3		6	2		
	4			5			3	
	6						7	
		9				8		
8			1	5				6
	2			4			1	

	1	2						
3			1					
7			3			6	8	
	5	6	4		9			7
			4		5			3
	7					5	2	4
6							7	
			7	9			3	
		1	6		8			

스도쿠 정답

6	1	8	4	7	5	2	9	3
9	5	2	6	1	3	8	7	4
3	7	9	8	5	6	1	4	2
5	4	6	8	2	7	1	9	3
8	9	1	5	6	2	4	7	3
1	7	2	9	4	8	5	6	3
7	8	5	6	1	2	9	4	3
2	9	4	7	8	5	2	6	1
4	6	1	8	9	7	3	5	2
2	6	7	8	9	1	5	4	3
9	5	2	6	1	3	8	7	4
8	4	1	5	2	6	7	9	3
7	2	5	1	9	8	4	6	3
5	9	6	5	2	7	4	8	1
1	8	9	7	4	6	1	3	5
3	7	2	1	6	1	8	9	4
6	4	1	8	9	7	5	2	3

문제 제공 = 보너스

김상희의四季

안과 같이 같은것, 慎獨

요즘 들어서는 더욱더욱 삼재판단의 의미가 더욱 크게 다가온다. 얼마 전에도 '미투'에 관한 단상을 풀어낸 적이 있지만 충격적인 우리 남성 위주 사회의 민낯이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으로, 더 나아가 세계적으로도 적지 않은 인지도를 지니고 있었던 문인에 대한 폭로 내용뿐만이 아니다. 연극계를 비롯해 여기저기에서 들려오는 '미투' 현상에 인간과 동물의 경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된다. 그러나 이것이 어디 문화예술계만의 얘기겠는가? 특히나 사회적 약자나 지위가 낮은 여성에 대한 권력이나 재력의 우위에 있는 남성들은 공공연히 자행해온 폭도 아니겠는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가장 존경받는 위치에 있어야할 종교계에서도 발생한 문제이기도 하며, 이미 역사적으로도 남자와 여자가 존재하는 한 있어온 뿌리 깊은 문제였지만 여권이 신장되다보니 이제야 여성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일이다. 우리 어머니들이 종종 하던 얘기가 있다. 남자들은 대문 밖을 나가면 내 남자가 아니라는 자조적인 얘기를 결부 짓는 것은 지나친 얘길까? 필자가 여자라서인지 이 미투 폭로의 대상자들이 집에서는 모두 자상한 아버지나 남편이었을 거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다. 성인의 가르침을 믿고 의지하는 필자로서는 신독(慎獨)을 실천하는 이들이야말로 성인(聖人)이란 생각을 한다. 신독이 무엇인가? 바로 안과 같이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울곡 이이는 스스로 자경문(自警文)을 지어 홀로 있을 때조차 부끄럽지 않은 행동거지를 지켜나갔다고 전해진다. '신독'하면 울곡 이이를 먼저 떠올리는 이유이기도 하다.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군자로서의 인격수양을 이루기 위한 자신과의 엄중한 약속인 것이며, 자신의 마음속에 찌르는 불순한 욕망이나 생각조차 물들지 않게 하려는 의도인 것이다. 이순신장군 역시 백의종군 때 거쳐하려던 집의 주인이 과부라는 말을 듣고는 다른 집으로 옮겼다 한다. 자신의 의지를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불미스러운 말이 돌 수도 있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행동이다. 구설이란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사주명리학적으로는 정관과 정인이 투출한 경우, 안과 같이 다르지 않은 정직하고 고지식한 성품이라고 본다. 물론 반안살과 같은 좋은 신살이 함께 있으면 고위직 출세도 기대할만 하다. 여기에 금국의 사주라면 흔히 말하는 청백리에 해당하는 관직에 오른다고 본다.

'김상희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디톡스 다이어트



김래영 원장의 건강관리

유난히 추웠던 겨울 한파가 물러나고 따뜻한 봄이 성큼 다가왔다. 봄의 시작을 알리는 입춘이 지나면 얇아진 옷차림에 다이어트를 결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데, 무리한 다이어트는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요요현상 등과 같은 부작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자신의 체질을 고려한 다이어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봄이 다이어트 적기로 꼽히는 이유는 겨우내 움츠러들었던 몸이 따뜻한 날씨로 긴장이 풀리면서 근육이 이완되고 혈액순환과 신진대사도 원활해지기 때문이다. 또 야외활동이 많아지고 활동량이 증

가하다보니 칼로리 소모량도 늘어 살이 잘 빠지게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이 잘 빠지지 않는다면 다이어트에 매번 실패한다면 살이 잘 빠질 수 있도록 체질을 개선시켜 주는 것이 좋다.

요요현상 없는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체질개선, 즉 장내 환경을 개선시켜주는 것이 중요한데, 장내 독소가 많이 쌓이게 되면 유해균이 늘면서 소화가 느리고 음식물들이 부패해 살이 잘 찌는 체질로 바뀌게 된다.

이때 장해독 치료를 시행하면 장 속에 쌓여있던 각종 노폐물과 독소가 체외로 배출되어 체중감량은 물론 몸속 밸런스까지 잡아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비만의 주범인 장내 유해균은 줄고 유익균이 늘면서 살이 잘 찌지 않는 체질로 바뀌게 된다.

이처럼 장해독 치료는 단순히 살을 빼

는 것뿐만 아니라 질병에 대한 저항력과 면역력을 높여주기 때문에 복부비만이나 내장지방, 지방간, 고혈압, 피부질환, 면역질환 치료에도 도움이 된다. 실제 오랜 임상결과 체내 독소배출효과는 물론 고혈압, 간 기능 수치가 정상범위로 돌아온 것을 수치로 확인할 수 있었다.

본원에서 시행 중인 '아유르베다 디톡스' 요법은 세계적인 대체의학으로 꼽히는 인도의 아유르베다와 동양의 한의학을 접목시킨 방법으로 국내 최초 양한방, 아유르베다 통합의학의 주창자인 이병관 박사와 필자가 공동 도입·연구한 치료방법이다.

이미 미국과 유럽의 병원 및 전문 의료기관에선 대체의학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효과적인 치료를 위한 개개인의 체질에 맞게 체계적인 치료계획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다.

/입구정 대자인 한의원 원장



삼성전기가 '2017 인텔 SCQI 어워드'에서 PQS(우수품질공급업체상) 어워드를 수상했다. 11일 밝혔다. 인텔은 전세계 공급업체 중 품질, 기술력, 고객서비스, 환경, 지속가능성 등 다양한 항목을 종합 평가해 우수한 기업을 선정, 매년 시상한다. 지난 7일 미국 캘리포니아 산타클라라 컨벤션 센터에서 진행된 시상식에서 삼성전기 등 21개 업체를 선정해 수상했다. 삼성전기 이윤태 사장(사진 가운데)이 인텔 시상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삼성전기



SK이노베이션이 후원하는 사회적기업 컨티뉴(CONTINUE)가 네이버 해피빈을 통해 목표 모금액의 14배에 달하는 4342만원을 후원받으며 성공적으로 펀딩을 종료했다. 컨티뉴는 가족시트, 안전벨트, 에어백 등 자동차에서 재활용되지 않고 버려지는 부산물을 업사이클링해 제작된 가방, 지갑 등의 패션 아이템을 판매하는 사회적기업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 8일 연세대 10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2018 글로벌 지속가능발전포럼(GEEF)'에서 SK가 지원한 업사이클링 사회적기업 컨티뉴가 제작한 가방을 들고 있다. /SK이노베이션

‘미투’ 정치권 폭로 어디까지 갈까



기저수첩 이창원 (산업부)

‘미투(me too, 나도 당했다)’ 폭로가 우리 사회 ‘권력의 핵심’인 정치권까지 겨냥하고 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였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 의혹, 정봉주 전 의원과 민병두 의원의 성추행 의혹 등 폭로가 이어졌다. 사실 정치권의 성추행·성폭행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돼오던 것이었다.

정치인과 보좌진 사이의 관계에서, 정치인 혹은 보좌진과 이해당사자 사이의 관계에서, 더 나아가 취재 경쟁 속 정치인과 기자의 사이에서 성폭력 문제는 거의

대부분의 아침마다 나오던 대화의 주제였다. 기자는 남성이기에 다행(?)히도 그러한 일에 휘말리지는 않았지만, 이런저런 자리에서 목격하거나 전해들은 성폭력 문제는 실제로 심각하다고 느껴왔다.

때문에 이번 폭로가 일회성 이슈에 그치지 않고, 말바닥까지 모두 드러냄으로써 진정한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당시에는 폭로 후 피해자는 폭로자들 뿐일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생각에 앞에서 강하게 문제제기할 것을 주장하지 못했다.

보좌관·비서 등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꿈꾸는 나라가 있고, 정치활동의 모습이 있다. 그 꿈을 펼치려면 공천 등 정당의 지원이 필수적인데 성폭력 폭로 등

받을 수 있겠지만, 정치활동을 위한 정당이 지원이 필요할 때에는 배제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 현실이라는 생각이었다.

어쩌면 아직도 이러한 구조들이 지금 정치권을 향한 미투 폭로가 더욱 폭발적으로 '나올 것이 나오지 않는 이유'일 수 있다.

하지만 이제는 더 많은 분들의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정치권에서 새로운 세상을 꿈꾸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힘들지만 더더욱 그래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주변의 작은 변화가 큰 흐름이 되고,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갈 수 있다.

다만, 용기를 내는 분들을 향해서는 더욱 응원하고, 2차 피해가 없도록 힘을 모으는 등 노력을 통해 끝까지 이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돼 줘야 할 것이다.

/mediaeco@metroseoul.co.kr



효성이 효성챔피언십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대회의 모금 기금과 법인 및 직원의 기부금으로 베트남 현지 학교에 미니 도서관을 기증하고 9일 헌관 기증식을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 /효성

대관령중학교 후원금 전달



하나금융그룹은 10일 강원 울림픽파크 코리아하우스에서 '동계스포츠 꿈나무 양성 학교 후원'을 위해 평창지역 동계스포츠 양성학교인 대관령중학교에 후원금을 전달했다고 11일 밝혔다. 하나금융그룹은 대회 기간 동안 7만 4000좌나 판매된 평창동계올림픽 기념상품 '하나틴 평창 통장'의 연평균 잔액과 연계하여 조성된 기부금에 추가 후원금을 더해 대관령중학교 동계스포츠 선수단을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까지 순차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하나금융



신한카드, 7기 아름다운 북멘토 대학생 봉사단 발대. 신한카드는 지난 9일 서울을 지로에 위치한 신한카드 본사에서 '제7기 신한카드 아름다운 대학생 북멘토 봉사단' 발대식을 가졌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선발된 북멘토 봉사단 30명은 이틀 동안 독서지도 교육을 받은 후 오는 8월까지 서울, 경기, 인천지역의 아동센터와 복지관에 위치한 아름다운 도서관에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독서지도 프로그램 및 멘토링 워크숍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신한카드

- 인사**
- ◆인론중재위원회 ◇승진 △1급 운영본부장 정희성 △2급 심의1팀장 임종우 △3급 조사1팀 차장 박은영 △3급 조사2팀 차장 이정화-홍보팀 차장 최은진-심의2팀 차장 김정민-경기사무소장 이진아-전보 △심의실장 이수중 △기획팀장 구울화 △예산회계팀장 윤지경 △조사1팀장 류석창 △조사2팀장 강현석 △접수상담팀장 김윤정 △교육팀장 손정배 △연구팀장 안백수 △홍보팀장 남승균 △심의2팀장 김문성
 - 해양수산부 △과장급 승진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 함안정비과장 오기열
 - ◆금융위원회 ◇부이사관 승진 △금융정책과장 이형주 △과장급 전보 △혁신기획재정담당관 이영직 △금융정책과장 신진창 △금융시장분석과장 남동우 △산업금융과장 손주형 △보험과장 하주식 △중소금융과장 김기환 △사민금융과장 변재호 △자본시장과장 안창국 △자산운용과장 강영수 △인사팀장 정선인 △가상통화대응팀장 홍성기
 - ◆공정거래위원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 신동권 △과장급 전보 △감사

- 담당관 유성욱 △심판총괄담당관 홍대원 △경쟁심판담당관 황원철 △협력심판담당관 민혜영 △시장구조개선과장 김호태 △지식산업집시과장 장혜림 △기업거래정책과장 이동원 △가맹거래과장 유영욱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총괄과장 송정원 △공정거래위원회 김대영 △과장급 직위승진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제조하도급과장 이선미
- ◆식품의약품안전처 ◇서기관 승진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실 임현호 △기술서기관 승진 △처장실 김남수 △운영지원과 식품위생사무관 방성연 △의약품안전국 의약품정책과 김정연 △과장급 연구관 전보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연구관리T/F 팀장 김희성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식품위해평가부 잔류물질과장 이강봉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독성평가연구부특수독성과장 박기숙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실 사과장 정진백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시험분석센터유해물질분석과장 최현철
- ◆주택금융공사 △상임감사 이동윤
- ◆기술보증기금 △상임감사 박세규
- ◆국민연금공단 △감사 이춘규
- ◆중소벤처기업부 △과장급 임용 △홍보담당관 김재용
- ◆우정사업본부 ◇고위공무원 승진 △강원지방우정청장 민재석 △과장급 전보 △제주지방우정청장 조정근
- ◆파이낸셜뉴스 ◇이사 △논설위원실 논설실장 박인찬

부음

▲김옥현씨 별세, 김영우(전 새전북신문 기자)씨 부친상 = 10일 오전 7시, 삼성장례문화원 201호.

metr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이장규

인쇄인 (주)중앙일보 김교준
광고문의 02)721-9851.3

2002년 5월 31일 창간/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100206
제3912호 / 0006호

고3 평균 0.5등급 하락 전망... 취약과목 파악 기회로

(3월모평→2019수능)

2018 첫 모의평가 해보니 시험범위 한정·재수생 미포함 올해 수험생 '반짝 증가' 변수 정시냐, 수시냐 지원 전략 필요

올해 고등학교 3학년이 치를 수능능력 시험을 가늠할 첫 전국 모의고사가 지난 8일 치러졌다. 3월 모의고사는 실제 수능 출제범위에서 일부가 빠지고, 재수생이 응시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수능에서는 현 고3 수험생들의 성적이 평균 0.5등급 하락할 전망이다. 특히 학령인구 지속 감소 속 올해 고3의 경우 수험생이 반짝 증가해 올해 대입에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11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8일 실시된 2018학년도 첫 전국연합학력평가 응시자는 서울 27만명 등 전국적으로 115만명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123만명(서울 29만명)과 비교해 서울의 경우 2만명(6.9%p)이 감소했고, 전국적으로는 8만명(6.5%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2020·2021학년도 대학수능능력시험 비교〉

구분	2019-2020 수능	2021 수능
대상	현 고3, 현 고2	현 고1
국수영	국어 및 수학(가/나형)은 상대평가, 영어는 절대평가	국어 및 수학(가/나형)은 상대평가, 영어는 절대평가
탐구	한국사 필수(절대평가), 사탐(10과목), 과탐 8과목 등 최대 2과목(상대평가)	한국사 필수(절대평가), 사탐(10과목), 과탐(8과목) 등 최대 2과목(상대평가)
학생수	고3(약 57만명), 고2(약 52만명)	고1(약 45만명)
교육과정	2009 개정 교육과정	2015개정 교육과정

(자료=종로학원하늘교육)



올해 고2는 전년대비 5만명 감소하고, 고1은 7만명 감소하는데 반해, 고3 학생수는 약 57만명으로 전년도보다 약 1만여명 많아 학령인구가 반짝 증가하는 시기로, 올해 대입 경쟁률에도 반영될 전망이다.

올해 고1~3 모두 2018학년도 수능과 같은 체제의 시험을 치르지만, 올해 고1의 경우 2015 개정교육과정에 따라 교과서가 바뀌고 일부 수능 출제 범위도 변동이 있다. 공통적으로 국어와 수학(가/나형), 사탐과 과탐으로 치러지는 탐구영역(최대 2과목 선택)은 상대평가로 치러지

고, 영어와 한국사는 절대평가로, 한국사는 필수응시이다.

올해 고3이 치른 3월 학력평가는 자신의 전국적인 위치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첫 시험이라는 의미가 있다. 다만 수험가형 '기하와 벡터', 수학나형 '확률과 통계'가 출제되지 않는 등 과목에 따라 시험 범위가 한정됐고, 재수생들이 응시하지 않아 최종 수능에서 전범위가 출제되고 재수생이 포함된다는 점은 감안해야 한다.

시험범위 증가와 재수생 유입 등에 따라 3월 모의고사 결과는 최종 수능과 비

교해 수험생의 약 70%는 약 0.5등급 정도 성적이 하락할 수 있다는 것이 입시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때문에 3월 모의평가를 너무 과신하기 보다는 자신의 취약과목을 파악하는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 종로학원하늘교육 오종운 평가이사는 "당장의 성적 결과 보다는 상위 등급대 학생들의 경우, 영역(과목)별 부족한 단원이나 문항 유형을 찾아 내용 이해와 문제 풀이를 통해 보완하고, 중위 등급 이하 학생은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틀린 문항 유형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 연습을 하게 좋다"고 조언했다.

특히 학생부 중심의 수시모집에 지원할지, 수능 중심의 정시모집에 지원할지에 대한 전략도 필요하다. 고3의 경우 1학기 내신 학습과 상대평가인 수능 국어, 수학, 탐구 중심으로 학습하는 것이 권장된다. 수능 영어의 경우 올해 역시 절대평가로 시행되므로 영어 실력이 우수한 학생의 경우 특히 수학, 국어, 탐구에 보다 많은 학습 시간을 할애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영어 중위권 이하의 경우는 수학, 국어, 탐구, 영어 공부 시간을 고르게 할애해 영어 상위등급을 목표로 하는게 좋다.

또 과탐 영역의 반영 비중이 높은 자연계열 학생들은 적어도 과학탐구 1과목 만큼은 1학기 중으로 완벽하게 대비하는 것이 좋다.

또 3월 모의고사에서 나타난 자신의 실수를 확인하는 등 실전 연습을 통한 실수를 줄이는 학습전략도 필요하다.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우연철 평가팀장은 "공부할 땐 알았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나거나 문제를 잘못 읽어 틀려 억울해하는 학생이 많다"면서 "실수 하나로 등급의 차이가 벌어질 수 있으므로, 실수로 틀린 문제는 꼼꼼히 확인해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우 평가팀장은 1~3등급대 학생의 경우 특히 오답노트를 만드는 것을 추천했고, 4등급 이하 학생의 경우 틀린 문제의 개념을 확인하고 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1~2 학생의 경우 고등학교 내신을 중심으로 대비하는 게 좋다. 특히 고1의 경우 올해 처음 교육과정에 포함된 공통과학, 공통사회 대비가 필요하다. 중장기적으로는 교과서 중심으로 지원 과목과 유형에 맞춰 2020과 2021 수능에 대비하는 것이 좋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장호성 단국대 총장(왼쪽)이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에게 학위기를 증정하고 있다. /단국대

단국대, 바흐 IOC 위원장에 명예박사 학위

명예정치학박사 수여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이 단국대 명예정치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단국대는 지난 9일 경기도 용인 죽전캠퍼스 난파음악관 콘서트홀에서 학위수여식을 갖고, 평창동계올림픽 남북한 공동입장을 적극 지지하는 등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창올림픽 성공에 크게 기여한 공로 등을 인정해 바흐 위원장에게 명예정치학박사학위를 수여했다.

단국대는 "바흐 위원장은 IOC가 어떻게 기능해야 하는지 위원장으로서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인지 분명한 비전을 제시했다"면서 "세계 스포츠 발전과 인류평화에 헌신하고 있는 바흐 위원장의

삶과 업적이 단국대 교시인 진리·봉사에 부합한다는 점에서 바흐 위원장에게 명예정치학박사학위를 수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명예박사 수여식은 장충식 단국대 이사장과 장호성 총장,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조재기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유성엽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바흐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제가 '우리' 대학이라고 부를 수 있는 단국대는 지난 70년 동안 스포츠가 한국교육의 핵심 영역으로 자리 잡는 데 큰 공헌을 했다"며 "올림픽과 깊은 인연을 이어온 대학이 수여하는 명예박사학위는 더할 나위 없는 영광이다"고 화답했다. /한용수 기자

서울시교육청 유아·초등생 대상 영양체험관 운영

종로구 진흥원서 학기중 운영

서울시교육청 산하 학교보건진흥원은 종로구 진흥원 1층에서 유치원·초등학교 학생 대상 '영양체험관'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단 방학기간은 제외한다.

영양체험관은 식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위생, 건강에 필요한 식품을 합리적으로 선택하도록 하는 등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영양체험을 할 수 있는 장소로 작

년에는 4103명의 어린이들이 체험에 참가했다.

올해는 '신나는 영양나라 대탐험'을 주제로 ▲음식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소화되는 과정 ▲5군 영양소가 우리 몸에 들어와서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한 정보 ▲식품에 대한 다양한 정보 제공 ▲비만조기 체험 ▲체지방분석기를 통한 체성분 검사 ▲올바른 손 씻기 및 건강 운동 등 9개 영역의 체험교육이 이뤄진다. /한용수 기자

성균관대 명륜당에서 인사하는 선후배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 명륜당에서 열린 신발레에서 신입생들과 선배들이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컬링, AI서도 세계 최강... 日 누르고 우승

유니스트 AI 컬링 프로그램 일본서 열린 대회서 정상에

인간 컬링에 이어 AI(인공지능)컬링에서도 대한민국이 최강의 실력을 드러냈다.

유니스트(UNIST·총장 정무영)는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 최재식 교수와 김솔아·이교운 대학원생이 개발한 AI 컬링 프로그램이 일본에서 열린 '디지털 컬링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다고 11일 밝혔다.

디지털 컬링 대회는 AI 프로그램이 컴퓨터 공간에서 컬링 경기를 치르는 게임으로, 2015년 3월 일본 전기통신대학(UEC)에서 처음 시작돼 올해 4회를 맞는다. 이번 대회는 일본에서 열리는 '게임 인공지능 토너먼트'의 한 종목으로 매년 3월 열린다.

올해 대회에는 유니스트 최재식 교수팀과 일본팀 5곳이 참가했다. 최 교수팀은 7승 3패로 공동 1위에 올랐고, 플레이오프 게임에서 2승을 추가해 최종 1위에 올랐다. 유니스트 김솔아 씨는 "플레이오프 게임에서 승부를 벌인 3개 팀이 승률이 높기로 유명한 AI 컬



디지털 컬링 대회에서 우승한 유니스트 이교운, 김솔아 씨, 최재식 교수(왼쪽부터). /유니스트

링 프로그램이었다"며 "일본보다 늦게 개발을 시작한 AI 프로그램이지만 성능만큼은 세계 수준임을 입증해 뿌듯하다"는 소감을 밝혔다.

컬링은 상대를 파악하고 복잡한 전략을 세워 정교하게 수행하는 경기로, '빙판 위의 체스'로도 불린다. 최적의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점에서는 바둑과 유사하다. 하지만 실제 전략을 세우는 건 바둑보다 훨씬 복잡하다. 빙판 위 스톤(stone)이 위치할 경우의 수가 무한대에 가깝고, 스톤 충돌이나 빙질에 따른 불확실성, 경기수행능력 등 변수가 다양하기 때문이다.

최 교수팀은 AI 컬링 프로그램에 알

파고(AlphaGo)의 자가학습 딥 러닝(Deep Learning) 기술과 함께 연속공간을 효과적으로 탐색하는 커널 회귀(Kernel Regression) 기법을 적용해 스스로 이기는 전략을 수립하도록 만들었다. 자가학습 딥 러닝은 '경기 상황에서 유리한 투구 위치를 예측하는 네트워크'(정책망)와 '현재 상황에서 승률을 예측하는 네트워크'(가치망)를 하나로 결합해 학습 속도와 성능을 최대화한다. 또 커널 회귀 기법은 기존 탐색정보를 사용해 적은 수만 고려해도 최적의 전략을 찾아낼 수 있게 한다. 이를 기반으로 약 16만 투구 데이터를 초기 학습에 이용했고, 이후 스스로 생성한 약 450만 투구 데이터를 통해 강화학습했다.

유니스트 이교운 씨는 "컴퓨터상에서 벌어지는 게임이라 현실에서 사람과 컬링 경기를 할 때와 조금 차이는 있다"면서도 "기본 전략들을 학습해 최적의 전략을 짜내는 알고리즘은 컬링 선수들의 훈련이나 전략 수립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솔아 씨는 "현실에서 움직이는 로봇에서 구현된 AI는 시뮬레이터에서 작동할 때와는 또 다른 점이 있었다"고 말했다. /한용수 기자

금강산오션리조트

서울출발 동서고속도로 개통
2시간 으로 가까워졌습니다.

595만원
10년후반환/여름휴가 예약중



하늘이 내린 천혜의 비경이 숨쉬는곳
통일전망대 화진포 송지호와 금강산비경을 간직한곳
하루를 머물러도 안락함을 느낄수 있는 리조트로 초대합니다.

*분양 하계 휴양소, 연수문의
02)541-0113
24시간 상담 (공휴일 상담 가능)

대우건설이 시공하여 2011년 아시아 경제 신문 리조트 부문 히트 상품으로 선정된 동해안 고성에 위치한 금강산 오션리조트는 국내 바닷가 리조트 가운데 바다와 거리가 가장 가까운 동해 비치리조트로 여름 휴가철이 되면 해변에서 해수욕과 바다낚시, 등산 등 각종 레포츠를 즐길수 있고 힐링 휴가를 즐길수 있는 동해안 휴양지로 거품을 뺀 가격에 분양중이다.
금강산오션리조트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등기제 분양으로 평생 이용이 가능하며 매매 상속 증여가 가능하다. 분양가는 패밀리형 53㎡ 595만원, 스위트형 99㎡를 795만원, 로얄스위트형 165㎡ 1,395 만원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어 타업체와 비교해 실속 있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거품을 완전히 제거 한 가격에 분양을 받을수 있는 좋은 기회로 선착순 마감한다. 더구나 선착순 30

명에게는 무료숙박권 10매 해수사우나 이용권 30매를 증정 한다니 관심 가질만 하다.
또한 제주도 리조트를 이용하시는 고객들을 위하여 제주도내 제휴된 골프장 5곳을 준회원 자격으로 사용가능 하고 필리핀 세부 중국 청도 일본 니가타 말레이시아에 골프와 리조트를 회원 대우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금강산오션리조트는 100%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소유권 이전등기제로만 분양을한다.
금강산오션리조트는 직영 리조트인 동해 리조트와 제주 리조트 외에도 도고 나주 지리산 경주 설악 덕구 등 전국 8개 지역에 리조트를 사용할 수 있다. 금강산오션리조트 정회원이 되면 가입과 즉시 가족 카드 5매가 발급 되어 가족 친지들이 함께 연간 30일을 정회원으로 사용할 수 있고 법인 가입시에는 무기명 카드가 제공되어 사원 후생 복지로

사용가능 하다. 위치가 동해안 고성 바닷가에 위치하여 여름 휴가시에 인기가 좋아 창을 열고 나서는 바닷가 백사장으로 여름 휴가를 즐기기에 안성맞춤이다. 분양 가격의 반값으로 동해 바다 위에 떠있는 듯한 별장을 구입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입금 선착순으로 바닷가 객실을 우선 배정 받아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수 있다.
문의: 02)541-0113 신청금 50만원
기업은행 244-025348-04-029 (주) 미봉
금강산오션리조트는 공정거래 위원회가 승인한 표준약관 사용과 관광진흥법상 적합한 등기제로 분양합니다.



제주리조트

Poshill 양평 '타운하우스'

“남한강과 용문산이 파노라마 처럼 펼쳐진 양평 최고의 조망권을 자랑하는 사업지!”

※ 양평역 10분

- 송파~양평간 고속도로 2023년 개통예정
 - ▶ 송파15분
- 제2외곽 순환고속도로 2020년 개통예정
 - ▶ 수도권 빠른이동
- 서울 동부권 잠실/송파/하남과 성남/분당/죽전에서 차량으로 40분대에 사업지 도착 가능

※ 현장에 모델하우스가 전시중입니다.

포스코 자회사 포스홈시공 문의 : 070-5133-6570

강촌 스카이하일 2억 7천만!
대지 396㎡ + 건축 99㎡ (모델하우스 특가 분양)

강촌역 10분 강촌IC 5분 송파 40분

송파에서 40분, 강촌역에서 10분 거리 되는 강촌스카이하일 타운하우스 주변은 북한강의 수려한 모습과 그 주위에 자연 휴양림들로 인해 그 가치가 더해진다. 도시에서 누릴 수 없었던 깨끗한 공기와 풍수지리학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배치가 바로 강촌이다. 인프라는 물론이고, 남이섬, 강촌엘리시안, 대명비발디 등 여러 관광지까지 가까운 분양 조건 환경을 제대로 갖추고 있다. 교육환경도 우수해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에게도 안성맞춤이다. 분양 관계자에 따르면 "고객의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온가족의 아름다운 생활을 빛낼 수 있다."며 말하기도 했다.
단지 내 넓은 진입로와 도시가스, 상수도 설치로 생활에 전혀 불편함이 없으며 친환경 목조주택, 풍부한 자연환경으로 어린 자녀를 둔 젊은 층부터 노년층까지 다양한 고객의 요구를 충실히 반영하였다.

최근 삶의 질을 중시하는 주거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자연의 편안함과 쾌적함을 느낄 수 있는 타운하우스가 인기를 끌고 있다. 강촌스카이하일 타운하우스 현장 방문하면 샘플하우스를 구경할 수 있고 상담받을 수 있다. 더 자세한 사항은 02-6959-2192에 연락하면 된다.

분양문의 : 02-543-1177

봄비처럼 마음 적시는 따뜻한 멜로... 연인과의 재회

film review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지금 만나러 갑니다

日소설가 이치카와 다쿠지 원작 배우의 연기·영화의 미장센 감탄

‘세상을 떠난 연인과 재회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혹은 ‘세상을 떠나기 전 사랑하는 사람들과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볼게 하는 여운이 진한 영화가 개봉한다. 바로 손예진·소지섭 주연의 ‘지금 만나러 갑니다’(감독 이장훈)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 잠들어있던 연애 세포를 깨우는 영화 ‘지금 만나러 갑니다’는 14일, 화이트데이에 관객을 만난다. 원작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곳곳에 웃음 포인트를 심어 새로운 색깔로 재탄생한 이 영화는 관객의 감성을 충족하게 적셔줄 것이다.

‘지금 만나러 갑니다’는 일본 소설가 이치카와 다쿠지의 동명 소설과 영화를 원작으로 했다. 세상을 떠난 아내가 기억을 잃은 채 돌아온다는 내용을 담은 작품이다.

1년 전 세상을 떠난 아내의 빈자리를 그대로 남겨둔 채 더디고 어설피지만, 씩씩하게 일상을 채워가는 남자 우진(소지섭). 어느 때보다 긴 장마가 시작되는 여름 날, 비가 오면 다시 돌아오겠



다는 믿기 힘든 약속을 남겼던 수아(손예진)가 기적처럼 돌아온다.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한 채 돌아온 수아와 우진은 새롭게 추억을 쌓아가며 사랑을 다시 시작한다.

다시 만날 수 없는 두 사람의 기적같은 재회로 시작하는 이 영화는 판타지적인 설정에 현실적 공감을 더해 관객의 마음을 두드린다. 아내가 돌아온 후 하루하루가 더욱 소중한 우진. 모든 게

낮선 수아에게 지난 날들에 대해 들려주며 기억을 짚어나간다. 영화는 현재와 과거를 오가며 이야기가 전개된다.

현재를 살고 있는 우진과 수아 역에는 소지섭과 손예진이 캐스팅됐다. ‘회사원’ ‘사도’ ‘군함도’ 등 대작품을 통해 선 굵은 인상을 남겼던 소지섭이 우진으로 분해 섬세한 감성 연기를 펼친다. 첫사랑에 빠진 모습부터 다시 시작된 만남에 설레하고 아내와의 행복을 놓치고 싶



은 신비한 매력까지 겸한 새로운 인생 캐릭터를 탄생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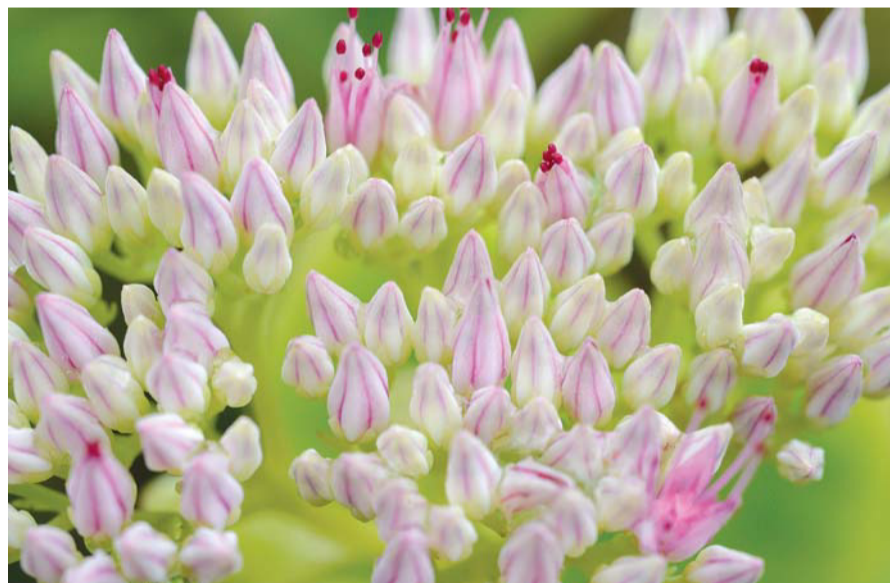
영화의 주된 내용은 소지섭과 손예진의 로맨스다. 두 사람의 절절한 눈빛과 힘이 맞는 연기 호흡은 진한 애정신이 없어도 실제 연인같은 착각에 빠질 정도. 스크린을 가득 채우는 소지섭과 손예진의 감정 연기에 관객은 매료될 것이다.

어린 우진과 수아 역에는 각각 이유진과 김현수가 캐스팅돼 학창시절 짝사랑하는 소년·소녀의 모습을 담았다. 이밖에 고창석, 손여운, 이준혁 등이 출연해 스크린을 더욱 풍성하게 만든다.

특히 대체불가 매력의 소유자 고창석(홍구 역)은 적재적소에 웃음을 유발해 극의 분위기를 환기시킨다. 우진의 둘도 없는 친구인 동시에 우진의 아들 지호(김지환)에게는 든든한 삼촌, ‘홍구 삼촌’의 활약도 관전포인트 중 하나다. 잔잔한 멜로영화라 자칫 지루할 거라 예상하겠지만, 고창석이라는 배우가 그 예상을 단번에 깨부숴버렸다.

배우들의 연기도 일품이지만, ‘지금 만나러 갑니다’의 미장센에도 감탄이 절로 나온다. 자연 풍광과 어우러진 우진의 집과 수아의 작업실, 그리고 비오는 날 기적처럼 수아를 만난 기차길 터널까지 아름다운 동화 속 장소같은 느낌을 자아낸다.

촉촉한 봄비처럼 찾아온 ‘지금 만나러 갑니다’는 관객을 맞을 준비를 마쳤다. 3월 14일 개봉. 12세 이상 관람가. 러닝타임 131분.



시와 사진이 있는 아침

큰평의비름

가장 아름다운 날은 오지 않았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별은 아직 찾지 못한 별이지

/고홍근 작

신의현, 패럴림픽 크로스컨트리서 값진 동메달

남자 좌식 15km 종목 출전 평창 패럴림픽 韓 첫 메달

신의현(37·창성건설)이 2018 평창 동계 패럴림픽(장애인올림픽)에서 한국에 첫 메달을 안겼다.

신의현은 11일 강원도 알펜시아 바이애슬론 센터에서 장애인 크로스컨트리 남자 15km 좌식 종목에서 42분 28초 9를 기록, 동메달을 수확했다.

평창 패럴림픽에서 나온 한국 대표팀의 첫 번째 메달이자, 한국이 역대 동계 패럴림픽에서 거둔 세 번째 메달이다. 2002년 솔트레이크시티 대회에서 장애인 알파인스키 종목의 한상민과 2010년 밴쿠버 대회 휠체어 컬링 종목 대표팀이 각각

은메달을 획득한 바 있다.

‘투혼의 메달’이었다. 전날 바이애슬론 7.5km 남자 좌식에서 아쉽게 5위에 올랐던 그는 이튿날 도전한 자신의 주종목 크로스컨트리 장거리에서 값진 동메달을 따냈다.

이날 심기일전하고 나선 신의현은 29명의 출전 선수 중 28번째로 출발했다. 3.8km 구간까지 10분 54초 3으로 5위를 기록했던 그는 이후 5.92km 구간에서 4위로 올라섰고, 12.99km 구간에서 중국 쟁쟁을 제치고 3위에 올랐다. 신의현은 경기 막판 온 힘을 쏟으며 순위를 유지해 동메달을 획득했다.

한편 우승은 41분 37초 0을 기록한 우크라이나 막심 야로비치가 차지했다.

/김민서 기자 min0812@



11일 강원도 평창 바이애슬론센터에서 열린 2018 평창패럴림픽 크로스컨트리 남자 15km 좌식경기에서 동메달을 차지한 한국 신의현이 피니시라인으로 들어오고 있다. /연합뉴스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6:48 | 해질 / 18:36

3월 12일 음력 : 1월 25일

수도권 날씨 2 ~ 15°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지역별 날씨: 연천 -2/14, 동두천 -1/15, 가평 -1/15, 파주 -3/13, 서울 2/15, 양평 -1/16, 인천 2/11, 수원 1/14, 용인 1/14, 평택 -1/16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스포츠 한줄 News

- ▲ 스피드스케이팅의 장거리 기대주 정재원(동북고·사진)이 세계주니어선수권대회에서 5000m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 ▲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 유망주인 임은수(한강중)가 세계주니어선수권대회에서 프리스케이팅 개인 최고점을 달성하며 종합 5위에 올랐다.
- ▲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 알파인스키 시각장애 부문에 가이 드러너 고운소리와 함께 출전한 양재림이 1분43초03의 기록으로 참가 선수 11명 중 9위에 올랐다.
- ▲ 한국 테니스의 간판 정현이 남자프로테니스(ATP) 투어 BN P 파riba오픈 32강에 진출했다. 정현은 토마시 베르디흐(체코)를 상대로 16강 진출을 다룬다.
- ▲ 2012 런던올림픽에서 동메달을 딴 고(故) 정재성 삼성전기 배드민턴 감독의 발인이 11일 오전 엄수됐다. 정 감독이 현역 시절 7년간 남자복식 파트너로 활약하며, 런던대회 동메달을 합작한 이용대가 운구에 참여했다.
- ▲ 롯데 자이언츠가 13일부터 20일까지 8일간 기장-현대차 드림파크에서 제30회 롯데기 초·리틀·중·고교 야구대회를 개최한다.
- ▲ 축구 스타 리오넬 메시(FC바르셀로나)가 세 번째 아들을 얻었다.



[금융]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여성인재 육성 확대”
06



Life

[유통]
롯데마트 PB상품
‘온리프라이스’ 인기
11



충남 서산시 대산읍에 위치한 155만㎡(47만평) 규모의 LG화학 대산공장 전경. LG화학은 엘라스토머, NCC 등의 설비 증설을 통해 ‘글로벌 3위’의 화학업체로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다우-엑슨모빌 넘자” 화학메카 대산서 확인한 LG웨이

Q 르포 | LG화학 대산화학단지를 가다

47만평 규모·30여종 제품 생산
엘라스토머 20만톤 생산 가능해
공격적 투자로 고부가 사업 육성

10억 투자해 안전체험 공간 마련
다양한 안전사고 대처할 수 있어

“2019년에는 에틸렌 생산량을 29만톤으로 늘려 글로벌 톱3에 진입하겠습니다.”

새로운 비상을 준비하고 있는 LG화학 대산공장을 지난 9일 방문했다. 이곳은 약 155만㎡ (47만평) 규모의 수직 계열화된 대규모 석유화학 사업장으로, 여수공장과 더불어 LG화학 기초소재 사업본부의 대표 사업장 중 하나다.

이 곳에서는 NCC공장을 포함해 총 21개 단위공장을 가동하고 있으며, 크게 30여종의 석유화학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엘라스토머 20만톤·NCC 23만톤 증설

대산공장 동문을 지나 차량으로 약 5분간 이동하자 분주한 증설 현상이 나타났다. 이곳은 LG화학이 약 4000억원을 투자한 곳으로, 고부가 제품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엘라스토머를 총 20만톤을 생산할 수 있다. 엘라스토머는 고무와 플라스틱의 성질을 모두 가진 고부가 합성수지로 자동차 용 범퍼 소재, 신발의 충격 흡수층, 기능성 필름, 전선케이블 등에 사용된다.

올 하반기에 증설이 완료되면 대산공장의 엘라스토머 생산량은 현재 약 9만톤에서 29만톤으로 3배 이상 증가하게 된다. 생산량 기준으로 다우케미칼, 엑슨모빌에 이어 글로벌 톱3에 오르게 된다.

LG화학은 고부가제품 확대에 필요한 기초원료를 확보하기 위해 대산공장에 총 2870억원을 투자해 NCC(납사크래킹센터) 23만톤 증설도 진행 중이다. 내년 상반기에 증설이 완료되면 대산공장의 에틸렌 생산량은 기존 104만톤에서 127만톤으로

확대된다. NCC 단일공장 중 세계 최대 생산능력으로, 이로 인한 매출 증대 효과만 4000억원 이상이다.

특히 이번 NCC 증설은 기존보다 설비 효율이 높은 공정을 도입하는 등 투자 효율성을 극대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신규로 NCC공장을 건설하는 것과 비교해 투자비는 절반 이하다.

김동은 대산공장 주재임원(상무)은 “공격적인 선제투자를 지속해 고부가 사업을 집중 육성하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탁월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구조 고도화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내 석유업계 최초 ‘안전체험센터’ 건립

지난해 약 10억원을 투자해 안전체험 교육 공간을 마련한 LG화학은 안전환경을 최우선으로 삼고 안전환경 분야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 늘려가고 있다. 올해엔 전년보다 2배 이상 늘어난 14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전 사업장에서 안전이 최우선 가치로 정착되도록 관련 투자와 사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박진수 LG화학 대표이사 부회장이 “안전환경은 모든 사업활동에 최우선되어야 할 타협할 수 없는 원칙”이라며 안전환경의 중요성을 끊임없이 강조해온 것과 일맥상통한다.

이날 방문한 안전체험센터는 안전체험관, 영상체험관 등으로 구분돼 건설안전, 전기안전 등 총 5개 분야 24종의 체험설비가 갖춰져 있다. 보호구 충격 체험, 과전류 체험, 떨어짐 체험 등을 임직원들이 직접 체



LG화학 관계자들이 대산공장 안전체험센터에서 압력용기 폭발실험을 하고 있다(위). LG화학 관계자들이 대산공장 안전체험센터에서 안전화와 안전모에 대한 충격 체험을 보여주고 있다. /LG화학

험할 수 있다. 한 곳에 순서대로 나열된 체험 장비와 설비들을 보면서 마치 체력단련장에 온 듯한 느낌마저 들었다.

이날 직접 체험한 안전모 실험에서 안정장비의 중요성을 실감했다. 1m 높이 위에서 떨어진 해머가 안전모를 쓴 머리 위로 떨어졌지만 아픔이 느껴지지 않았다. 성인 남성이 망치로 내리치는 충격에도 안전할 수 있었다. 체험을 통해 안전모의 중요성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안전체험센터는 세계최초로 석유화학 맞춤형 센터로 건립됐다. 실제 석유화학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안전사고를 직접 체험하고, 상황별 대처 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화학물질 비산, 압력용기 폭발 체험, 과전류 체험 등이 대표적이다. 실제 눈으로 보는 것은 물론 오감을 통해 모두 경험할 수 있다.

대산공장 박상춘 안전환경담당은 “화학공장에서 실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위험작업을 현장과 동일한 설비, 작업상황으로 재현해 학습시키고 있다”면서 “경각심을 가지고 스스로 사고를 예방하는 능력이 극대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KB X BTS

대한민국대세 모바일뱅킹

KB스타뱅킹

일상을 바꿔놓을 새로운

<p>인증 없이 5초 만에 보내는 KB 빠른이체</p>	<p>로그인 없이 계좌 확인 KB 계좌부</p>
<p>자산관리를 게임처럼 즐겁게 KB Play Asset</p>	<p>우대환전에 외화 배송까지 KB 외화환전</p>



※ KB스타뱅킹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KB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를 참조하시거나 스마트상담부 (☎ 1588-999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광고물에 대한 유효기간 2019.03.19 까지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153-2호(2018.03.02)

KB 국민은행